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9호 2015년 7월 1일(수)/계간

발행인 · 안병환 | 발행처 · 중원대학교 홍보실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지면안내

2면 Campus News
총장님과 함께 하는 '중원사랑 캠페인'
중원대학교 그린캠퍼스 선포식 가져
김종호, '미스터 퍼펙트' 꺾고 세계정상!

3면 Campus News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 업무협약 체결!
주한중국대사관 아이홍거 교육참사관 초청 특강!
역사문화탐방 '분단의 상징' 판문점을 밟다

4면 Campus News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위 업무협약
꿈나무들이 자라나는 교육기부 현장!
제54회 항공우주정책 · 법 학술대회 개최

5면 Campus News
총장동정 | Photo News

6면 Students News
창업보육센터 개소
작업치료학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행사
간호학과 제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가져

7면 Students News
괴산 ICT홍보단, 재능기부로
지역사회와 상호발전을 꿈꿔요!
항공서비스 학과 승무원 체험!
'2015 다문화 멘토링 사전교육' 실시

8 · 9면 학과 탐방
2015학년도 신설된
항공서비스학과, 뷰티헬스학과를 엿보다!

10 · 11면 JWU in 人
중원의 숨은 주역 '기획처장 · 학생처장'

12 · 13면 JWU in 人
스승 김형탁 감독과 제자인
덴마크 국가대표선수 마야 예어와 요한 한센

14 · 15면 JWU in 人
공무원의 꿈 경찰행정학과 황재민군,
그리고 그 스승 조계표 고시원장
간호학과 첫 번째 졸업의 주인공 김정애

16 · 17면 Jungwon in life
도서관 전자정보자료
자격증 어디까지 취득 해봤니?

18 · 19면 Jungwon in life
1학년~4학년까지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는 꿀팁

20면 Global JWU
이웃나라에서 온 러시아 교환학생을 만나다

21면 Special
2015 중원대 상반기 활기찬 단과 체육대전

22 · 23면 Special
중원이에게 말해줘

24면 Culture
똑똑한 사랑은 알찬 데이트 코스와 함께

25면 Culture
괴산 5일장

26면 Culture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27면 Culture
스물-젊어서 좋다

총장님과 함께 하는 '중원사랑 캠페인' 지속적 전개 '눈길'

안병환 총장,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소통의 장 마련위해 '네팔' 돕기 모금운동, 간식나눔 이벤트 등 지속적인 캠페인





▶ 1. 안병환 총장을 비롯한 주요보직자들이 네팔 대지진 피해 어린이 후원을 위한 성금을 내는 모습. ▶ 2. 네팔 팔찌 캠페인을 벌인 안병환 총장이 간식을 나눠주는 모습. ▶ 3. 유니세프 네팔 팔찌 캠페인에 참여한 안병환 총장이 손목에 팔찌를 걸고 있는 모습.

안병환 총장이 이번에는 네팔 대지진 피해 어린이 후원을 위한 유니세프 '네팔 팔찌 캠페인'을 열었다.

지난 6월 10일 본관 로비에서 열린 이번 캠페인은 학생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중원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험기간마다 나눠주는 간식나눔 행사와 함께 이루어졌다. 안총장은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망설였지만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이번 행사를 간식나눔 행사와 같이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네팔 어린이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캠페인에 참여하여 네팔의 어린이들이 희망을 갖고 이 고난을 이겨내길 응원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은 기부금과 학생들이 매학기 하나하나 기부한 생활용품들을 모은 도네이션 박스는 유니세프를 통해 기부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총장님과 함께하는 중원사랑 캠페인'은 매 새학기와 시험기간에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간식을 전달하며 소통하는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예린기자 choiyerin@jwu.ac.kr

중원대학교 그린캠퍼스 선포식 가져



▶ 안병환 총장(가운데)와 각 처장, 구성원들이 그린캠퍼스 선서식을 마치고 기분 좋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리대학이 6월 17일 교내 CEO룸에서 그린캠퍼스 선포식을 가졌다.

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내빈소개, 축사, 그린캠퍼스사업 설명, 그린캠퍼스 선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안병환 총장, 이홍찬(그린캠퍼스 사업추진단장) 교수를 비롯해 각 부처 처장과 학부 교수들이 참석해 CEO룸을 가득 메웠다.

이번 그린캠퍼스는 여느 선포식과 달리 참여한 교수 및 교직원들이 그린캠퍼스를 상징하는 초록색 조끼를 입고 당당히 선서하여 그린캠퍼스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안병환 총장은 축사에서 "이번 그린캠퍼스사업의 성과는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하여 명품·명문 중원대학교를 넘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그린캠퍼스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함께 미래의 방향을 제시했다.

사업을 추진한 이홍찬 교수는 "그린캠퍼스 사업을 통해 연간 약 12억 원의 비용 절감효과와 함께 3천 여 톤의 CO2 배출 절감효과를 얻었다"며 "궁극적으로 중원대학교가 그린캠퍼스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중원대학교는 14년도에 정부에서 선정하는 그린캠퍼스로 선정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 친환경 교육과정 개발, 친환경 실천운동 등을 통해 그린캠퍼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임태균기자 tg0610@jwu.ac.kr

김종호, '미스터 퍼펙트' 꺾고 세계정상!



▶ 정상에 우뚝 선 김종호(레저스포츠학과 13)학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 김종호(레저스포츠학과 13)학생이 드디어 세계 정상에 올랐다.

현지시간 5월 30일 오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양궁 월드컵 남자 컴파운드 계에서 '미스터 퍼펙트'로 불리우는 마이크 로스(SCHLOESSER MIKE/네덜란드, 세계 2위)를 145-144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선수는 결승에서 4엔드까지 29-29-30-30을 로스는 27-28-30-30을 쏴 4점 차로 앞서나갔다.

마지막 엔드에서 로스는 연속 10점을 쏘면서 김종호를 1점차 까지 추격을 했으나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은 김선수는 침착하게 마지막 발을 9점 과녁에 맞추면서 첫 월드컵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세계 강호들을 토너멘트에서 다 꺽으면서 파란을 일으킨 김종호는 이번 월드컵 출전이 통산 3번째 대회라 세계 양궁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로써 김종호 선수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201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7월 3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금메달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예선 10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김선수는 48강에서 스위스 헤플핑어(HAEFELFINGER. R)을 148-144, 24강에서 멕시코 라미레즈(RAMIREZ A)를 145-143, 16강에서 프랑스 제네(GENET D) 149-142, 8강에서 브라질 로리즈(RORIZ JR. M)를 148-146으로 누르고 준결승전에 나갔다.

김종호는 준결승에서 디튼과 146점 동점으로 마친 뒤 슛오프에서 짜릿한 승리를 맛보며 결승에 진출했다.

한편 김선수는 오전에 열린 컴파운드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 참가해 멕시코를 235-228 꺽고 동메달을 차지했다. 〈편집부〉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 업무협약 체결!



▶ 중원대–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 업무협약 체결!

우리대학 안병환 총장과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김상기 조직위원장은 6월 9일 오후 조직위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양손을 잡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위의 대회 현황과 협력안에 대해 설명을 청취한 뒤 안 총장과 김위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스포츠를 통한 전 세계 군인들 간의 우호증진과 유대강화로 범세계적인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인류애를 되새기는 평화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원대와 조직위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협약서에는 대회기간 중 육군학생군사학교 선수촌에 입촌할 약 4,5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진들이 중원대학교의 각종 편의시설 이용과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중원대의 대회 홍보활동 지원, 대회 운영지원·통역·관람안내 등 자원봉사 지원 등의 구체적인 협력사항이 담겼다.

안병환 총장은"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중원대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김상기 위원장은 "국격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국제대회로 이끌겠다"며 "중원대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힘을 얻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오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경북 문경을 비롯한 8개 시군에서 열리며 세계 100여 개국 8,7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편집부〉

주한중국대사관 아이홍거 교육참사관 초청 특강!

(艾宏歌)



▶ 특강을 마치고 안병환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주한중국대사관 아이홍거(艾宏歌) 교육참사관 '중국의 교육개혁과 국제 교류'라는 주제로 열정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교가 4월 23일 CEO룸에서 주한중국대사관 아이홍거(艾宏歌) 교육참사관를 초청해 '중국의 교육개혁과 국제 교류'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에는 안병환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는 물론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최근 중국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아이홍거 교육참사는 특강에서 "한국과 중국은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교육을 가장 중시하는 국가이며 최근 교육부문의 국제교류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세계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문에서 많은 협조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개혁 개방과 고등교육의 발전, 한중 관계와 교육협력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특강에 참서한 학생과 교직원들의 큰 관심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아이홍거 교육참사는 최근 중원대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 대학과의 교류관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편집부〉

사진 – 최예린기자 choiyerin@jwu.ac.kr

중원인성교육 역사문화탐방 분단의 현실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판문점 견학



▶ 제 3땅굴 앞에서 학생들과 안내를 도와준 군인들이 어울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5월 23일 중원대학교 학생들이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판문점(JSA)'과 '제3 땅굴'을 견학했다.

JSA를 담당하고 있는 경비대대가 위치한 캠프보니파스(Camp Bonifas)에 도착한 학생들은 JSA안보견학관에서 JSA(Joint Security Area)에 대한 브리핑과 현재 남한과 북한의 상황을 영상자료를 통해 접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받은 뒤, 대대 전용 버스에 탑승해 정전협정의 상징인 대성동 마을을 지나 JSA에 도착한 학생들은 남과 북의 경계선 앞에서 분단의 현실과 함께 정전이라는 단어에 내포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북한의 기정동 마을이 한 눈에 보이는 초소에서는 100m 높이의 계양대에 걸려있는 북한의 인공기와 함께 실제 협정이 이뤄진 건물(이 후 판문점을 설치)을 볼 수 있었다.

판문점의 견학을 마친 이후 버스를 타고 제3 땅굴을 방문했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땅굴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열차를 타고 지상으로부터 250m 아래에 위치한 땅굴 내부로 들어갔다. 인솔자의 해설과 함께 성인남성이 허리를 펼 수 없을 만큼 낮은, 땅굴을 뚫기 위해 사용된 많은 수의 다이나마이트 흔적이 가득한 땅굴 내부를 둘러보며 아픈 역사의 현실을 눈으로 확인했다.

견학을 마친 뒤 북한학을 강의하는 장경욱 교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앞서 견학을 통해 분단의 현장, 종전이 아닌 정전, 나라를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이들의 노고를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었기에 더욱 뜻깊은 시간 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역사탐방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서영호 팀장은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은 전공수업 이외에 문화적인 소양함양과 함께 역사 인식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2009년도 부터 진행되어 다소 반복되는 코스도 있지만 새로운 코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중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은 본교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시작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예린기자 choiyerin@jwu.ac.kr

2학기 역사문화탐방 일정

9월 19일 청남대
10월 17일 쌍곡계곡
※참가신청 : 생활관 행정실
문의 : 학생처, 043–830–8104

중원대-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위 업무협약!

우리대학이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시종 지사)와 지난 4월 20일 오전 충북도지사 집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원대 안병환 총장과 이시종 충북도지사, 임각수 괴산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중원대학교는 엑스포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행사운영·통역·관람안내 등의 자원봉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 안병환 총장과 이시종 도지사(괴산유기농엑스포 조직위원장)가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특히 중원대의 최신 학술회의장을 활용한 국내외 학술회의를 5차례 개최해 유기농산업의 미래를 제시하고 행사 수준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안병환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원대가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중심 역할은 물론 성공적인 엑스포 운영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충북도가 유기농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메카로 도약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괴산군, 세계유기농업학회(ISOFAR)가 공동 개최하는 괴산 유기농엑스포는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생태적인 삶 - 유기농이 시민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편집부〉

꿈나무들이 자라나는 소리가 울려퍼지는 교육기부 현장!







▲ 명덕초 학생들과 박금숙 교수(오른쪽 맨끝), 중원대 골프과학과 학생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중원대 골프과학과 학생이 명덕초 학생에게 골프를 가르치고 있다.

"선생님, 이거 너무 허리가 아파요" 3월 27일 중원대학교 실내 골프장에는 무언가에 신나 들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다.

지난 2월 23일, 괴산명덕초등학교(교장 이상희)와 맺은 '2015 몸 튼튼 마음 튼튼 스포츠 활동을 위한 교육기부' 협약식의 훈훈한 결과이다.

대략 70여 명의 5 ,6학년 학생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중원대학교를 방문해 앙증맞게 생긴 작은 손으로 골프채를 단단히 부여잡고 구령에 맞춰 채를 힘차게 휘두른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아직 대학교로 이동하기에 무리가 있는 1, 2학년 학생들을 위해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종목의 스포츠를 가르친다.

골프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박금숙 교수는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골프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귀여우면서도 이런 나눔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뿌듯하다"며 "아이들에게는 나가서 뛰어 노는 것도 중요한 학습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필드에 나가 아이들이 힘차게 공을 치며 즐길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상희 교장은 "지난 해 봉사활동에 이어 올해도 중원대학교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히 여긴다"라며 "골프라는 스포츠가 우리나라에선 다소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원대학교의 적극적인 나눔 활동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재능 발굴이나 체력 단련 부분에도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 편, 이번 교육기부활동은 11월 중순까지 이뤄질 예정이며 명덕초뿐만 아니라 괴산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 갈 계획이다.

정명준기자 jenkins@jwu.ac.kr

항공대학, 제54회 항공우주정책 · 법 학술대회 개최



▶ 5월 15일 최준선 회장을 비롯해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분들.

지난 5월 15일 중원대학교 CEO룸에서 '우리나라 항공우주 발전을 위한 정책마련과 법 개선' 이라는 주제로 제54회 항공우주 정책 · 법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 대회에는 이호일 중원대 항공대학장을 비롯한 한국우주정책 법학회의 최준선 회장과 이창재 총무이사, 각 항공대학 교수진 및 항공대학 학생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최준선 회장의 개회사와 안병환 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2분과로 나누어 발표를 하였다.

학술대회는 총 5명의 국내 항공학분야의 저명한 교수들의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김종복 교수(한국항공대학), 최병철 실장(항공안전기술원), 함대영 교수(중원대), 김인현 교수(고려대)는 우리나라 항공 우주의 전망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 법규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최준선 회장은 "중원대학교에서 항공분야의 발전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은 다른 대학에서 본 받아야 할 점이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 항공 우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 우주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며 앞으로 이런 학술대회가 항공정책의 발전적인 토대가 될 학술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는 말을 전했다.

한 편 이 날 중원대학교는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와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앞으로의 항공우주분야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류양무기자 solo@jwu.ac.kr



총장동정

PHOTO NEWS

◀ 이종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초청특강 방문.



▲ 풀프라이트 한미교육위원단 심재옥 단장 방문.



▲ 안병환 총장, 신임 학군교 편재필 교수부장 예방받아.



▲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김종무 기획본부장 방문.



▲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 허경재 조직위 사무총장 중원대 홍보단 발대식을 위한 방문.



▲ 중국 장춘광화학원 국제교류처 부처장 방문.



▲ 중원대학교–동인초등학교 교육기부 업무협약 체결.



창업보육센터 개소, 예비창업자에 기술개발 · 연구 지원

우리대학이 지난 4월 2일 친환경 녹색기술 분야의 장비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과 산학연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CEO룸에서 창업보육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현재 산학협력단에는 23개의 기업이 입주 완료하여 입주율 85%를 육박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유기농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들이 충북 괴산군 산업단지에도 입주해 있다. 또한 2015년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계획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유기농산업에 대한 창업 열기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개소식에서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9명의 중원대학생 예비창업자도 직접 참여하여, 열띤 질의응답을 통해 본인의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키기도 하였다.

창업보육센터장인 이상열교수는 "앞으로 대학 내, 외부의 분야별 전문가를 연계시켜 보육 단계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원활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며 "특히 중원대학교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개발, 생산, 마케팅에 이르는 일체의 원스톱 창업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중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앞으로 각종 기술연구 장비 지원 및 자문, 업체 제품 홍보 지원 등의 서비스 또한 제공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발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이날 창업보육센터장, 충북지방 중소기업청장, 입주업체 대표, 중원대 청년창업가 9명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창업보육센터의 개소를 축하하고 있다.

중원대학생 청년 예비창업가



류지훈
중국어학과



이현진
레저스포츠학과

1) 중국어학과 10학번 류지훈 – '아이세이프' 24시간 고객보호시스템 개발

저는 어두운 밤길에 노약자, 여성분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는 서비스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치안문제가 두드러지는 때에, 건물 또는 점포를 경비하는 회사들은 이미 존재하지만 왜 아직까지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은 없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용고객이 소지하고 있는 회사제품의 버튼을 누르면 근처에 있는 저희 회사 직원이 5분 내로 즉시 출동하여 고객의 안전한 귀가를 돕거나 보호하는 고객보호서비스, 즉 '아이세이프'를 고안해 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발할 이 제품은 버튼을 누르면 굉음을 내는 손바닥 크기의 호신용기기로 휴대폰과 블루투스와도 연결되어 있어 지인들의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비상상황 발생 시 아이세이프 어플을 설치한 100~300m 이내의 회원들에게 푸쉬알림이 뜸으로써 위험상황이 주변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근방 아이세이프 지점의 직원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여 출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창조경제타운에서 IT 관련된 멘토분들과 꾸준한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및 기능개선에도 힘써 제품에 접목시키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2) 레저스포츠학과 14학번 이현진 – 多기능 多방면 활용가능한 동물실험 보정기구 개발

제가 관심을 가진 사업 분야는 실험동물의 보정기구 관련 사업으로, 나날이 동물연구와 실험이 늘어가는 현대사회에 좀 더 쉽고 다방면적인 실험을 진행하고자 기존과는 달리 여러 기능이 합쳐진 보정기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실험쥐만 보정할 수 있는 기존의 보정기구와는 달리 제가 개발 중인 보정기구는 실험쥐의 크기와 상관없이 조절이 가능하며, 무게측정, 마취, 약물투입이 보다 손쉽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소 저는 운동생리학에 관심이 많아 관련 논문을 많이 읽어보고 운동생리학 학회에도 자주 참여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동물관련 실험에서는 제한적인 보정기구밖에 개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직은 미숙하지만 앞으로 동물실험 및 연구에서 더 손쉽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한 제 사업아이템을 학과교수님과의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저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세울 수 있도록 현재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예린기자 choiyerin@jwu.ac.kr

작업치료학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행사



▶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드림하이 플래시몹' 공연을 하고 있다.

중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뜻 깊은 행사를 열었다. 중원대학교 기숙사 옆 공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대형 스크린과 스피커를 설치하여 행사 진행을 준비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조그만 연극 공연을 마련하고 끝날 무렵에는 '드림하이 플래시 몹' 공연을 선사해 학우들이 다 같이 박자에 맞춰 박수를 쳐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정이슬 학생은 "작지만 이런 보람찬 행사를 통해서라도 그 동안의 장애인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이런 행사가 많아져서 중원대 학우들이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장애인의 날 또한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작업치료학과 민시하 학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장애인의 대한 인식개선과 작업 치료에 대해 좀 더 알리고자 행사를 진행하였다"며"앞으로 작업치료학과에 대한 관심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작년부터 괴산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괴산중앙시장과 괴산노인복지회관에서 치매예방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류양무기자 solo@jwu.ac.kr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제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가져



▶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마치고 더욱 당당해진 학생들이 지도교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간호학과가 세 번째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교내 대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안병환 총장, 괴산군 보건소장, 의료보건대학 교수를 비롯한 간호학과 학생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예비 '나이팅게일' 34명은 나이팅게일 등불을 환하게 밝힌 뒤 자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과 스스로에게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낭독했다. 나이팅게일 선서문은 일생동안 간호직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간호하는 환자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내용의 선서문이다.

간호학과 최유실 학생은 "선서식을 통해 학생간호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설레면서도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 한다"며 "바쁜 시간을 내어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 중원대 간호학과는 1회 졸업생 전원 국가고시 합격과 전원 취업확정의 성과를 거뒀다.

임태균기자 tg0610@jwu.ac.kr

괴산 ICT홍보단, 중원대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지역사회와 상호발전을 꿈꿔요!



▶ 이날 발대식에 참가한 괴산 ICT홍보단 총 28명 중 75%인 21명이 중원대학생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괴산지역 내의 문화소개와 발전 사업에 앞장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4월 3일 오후 청천시장에서 괴산과 청천지역의 상인 및 상가번영회 회장, 사업단, 홍보단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괴산의 지역홍보와 전통시장을 알리는 괴산 ICT홍보단 발대식이 열렸다.

괴산 ICT홍보단은 블로그와 SNS를 활용한 마케팅 홍보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충북도내 대학생을 중심으로 괴산군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홍보단이다. 홍보단은 괴산군 소재의 전통시장인 청천 푸른내시장과 괴산 산막이시장의 정겨운 모습, 주변 문화유적 및 관광지, 맛집 등을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하여 외부인의 유입을 장려하고 괴산 내 유명 관광지를 외국인들에게도 소개하는 데 앞장서서 활동하게 된다.

홍보단으로 선발되어 이번 발대식에 참여한 중원대학교 최예린 학생(국제통상학과)은 "홍보단 활동을 통해 괴산군의 특화된 장점을 외부에 널리 알릴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인력이 부족한 괴산지역에서 젊은 에너지로 가득한 중원대생들의 적극적인 활약을 통해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으면 좋겠다"며 활동포부를 밝혔다.

임태균기자 tg0610@jwu.ac.kr

꿈으로의 한 걸음 항공서비스 학과 인천공항 & 아시아나 승무원 체험!



▶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이 대한항공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중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가 인천공항 및 아시아나 훈련원을 견학했다.

인천공항 직원의 인솔 하에 무인으로 항공 티켓을 발급받을 수 있는 '키오스크'를 시작으로 체크인, 보안검색 등 출국절차에 대한 설명과 항공안전 라운지에서 비상시 대처하는 방법 등 약 두 시간가량 인천공항을 견학했다. 이어 학생들은 견학을 진행하는 동안 평소에 관심 있었던 객실 승무원과 지상직원에 관련된 Q&A시간을 통해 서비스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과 다시 한 번 목표를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 다음으로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계열사로 국내외 항공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운송업체인 아시아나를 견학했다.

이곳에서는 견학에 앞서 효율적인 탐방을 위해 학생들은 A, B팀으로 나누어 아시아나 훈련원 투어를 시작했다.

아시아나 항공의 역사를 사진으로 관람 한 후 훈련원에서 실제 승무원이 되기 전 약 3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 공간들을 탐방했다. 워킹실에서는 직접 워킹라인을 걸어보며 얼마나 바른 자세가 승무원에게 중요한지 체험했으며 보잉 747의 모형을 본떠 실제 비행기 내의 이코노미석, 비즈니스석, 퍼스트석을 직접 체험했다.

항공서비스학과 이선영(항공서비스학과15)학생은 "아시아나 승무원들이 실제 훈련받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 보다 제가 꾸고 있는 꿈이 생각보다 더 멋있는 직업 같다"며 "이번 계기로 꿈을 향한 동기부여가 제대로 된 좋은 경험이었다"고 견학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 40명 정원으로 신설된 항공서비스학과는 중원대가 집중하는 특성화 분야로 미래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학과이다. 김유민기자 godqhr1302@jwu.ac.k

다문화 통합연구센터 '2015 다문화 멘토링 사전교육' 실시



▶ 2015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에 새롭게 선발된 중원대학생 40명의 멘토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열띤 의욕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30일 본교에서 2015년 다문화학생 멘토링 사전교육이 실시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 새롭게 선정된 40명의 중원대학생과 이주·다문화 센터장을 비롯한 교수님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사전연수의 목적은 다문화멘토링 사업에 참여하여 괴산, 음성, 증평지역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멘토링 할 중원대 멘토들에게 사전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며, 연결된 멘티와 지속적인 연계를 장려하여 지역사회에도 사회적인 공헌활동을 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전연수는 한국학과 이주희교수의 다문화 멘토링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여, 다문화 멘토링의 필요성, 활동우수사례, 멘토링 출근부작성법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주·다문화 통합연구센터의 김철수 센터장은 "충북지역의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글로컬 사업의 핵심 인재인 멘티들과 교류하는 중원대학생 멘토들의 역할 또한 그만큼 막중하다"고 뜻을 전했다. 이후 작년 멘토링사업에서 최우수 멘토로 선정된 국제통상학과 최예린학생은 '다문화멘토링, 어떻게 시작해야하나요'를 주제로 멘토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준비과정으로 멘토링을 시작해야하는지 조언을 해주며, 본인의 생생한 경험담을 다른 멘토들에게 들려주었다.

한편, 중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센터는 작년 충북 글로컬브릿지 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탈북, 다문화 멘토링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최예린기자 choiyerin@jwu.ac.kr

▶글로컬 :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세계화의 의미.

제9호 2015년 7월 1일 수요일

2015학년도 신설된 항공서비스학과, 뷰티헬스학과 를 엿보다!



▶ 항공서비스학과 이연숙 학과장(가운데)과 학생들이 이미지 메이킹 수업이 끝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항공서비스학과





Q. 안녕하세요. 언론장학기자 김유민입니다. 중원대 학생들이 항공서비스학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항공서비스학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네 안녕하세요. 항공서비스학과에 재학 중인 권영은입니다. 저희 학과는 운항이나 정비가 아닌 항공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일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진로는 대표적으로 승무원 뿐 만 아니라 공항에서의 예약발권, 운송을 담당하는 지상직원, 공항면세점, 호텔 및 다양한 서비스 관련 직종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Q. 진로를 위해 전공, 교양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저희는 지금 전공과목으로 “관광학원론”과 “이미지메이킹”을 듣고 있습니다. 관광학원론 수업은 관광의 어원부터 관광이라는 학문에 대해 심도깊이 들어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메이킹 수업은 밝은 승무원의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 연습과 서비스인이 갖춰야할 서비스 마인드 등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교양 수업은 대부분 저희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 언어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익,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선택해 배우고 있습니다.

Q. 염혜영양은 어떤 이유 때문에 승무원이 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어릴 적부터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는 항상 다른 문화를 많이 접해 볼 수 있는 직업을 꿈꿔왔습니다. 그때 마침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를 다녀왔었는데 기내안의 승무원을 보고 친절함과 단아한 밝은 미소를 보고 저는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승무원에 대해 많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는 것마다 너무나도 제 성격과 어울리고 저와 잘 맞는 직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Q. 그렇다면 미래에 어떤 승무원이 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A.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있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승객들에게 과한 서비스는 편안함 보다는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서비스보다는 승객이 비행 중 불편함은 없는지 한발 뒤로 물러나 지켜보며 서비스를 해드리고 승객들의 안전에 힘쓰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Q.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은 모두 훤칠한 키와 수려한 외모를 갖추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학과의 평균 키는 어떻게 되나요?

A. 네 저희 학과는 아무래도 나중에 취업을 할 때 키와 외모도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외모관리를 각자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학생들의 경우 평균 키 179, 여학생들의 평균 키165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항사의 경우 키가 아닌 암 리치(Arm reach : 까치발하고 손까지 뻗고 잰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키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Q. 외모가 중요한 요인이 되는군요? 각자 외모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본인의 외모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아무래도 몸매 관리를 꾸준히 운동을 하고 읍내를 나갈 때도 택시나, 학교 셔틀 버스를 이용하기보다 걸어다니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밥보다 라면 치킨 등 기름진 것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런 인스턴트를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먹게 된다면 동기들과 함께 기숙사내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 요가 등 간편한 운동이라도 하고 자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먹고 학우들과 같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Q. 1기로써 다들 목표와 마음가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A. 1기로서 아무래도 모범을 보여야하므로 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항공서비스학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과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 가기위해 선도부, 홍보부, 기획부, 총무부 4개의 부서로 나뉘어 부원끼리 자주 만나 회의도 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기인 만큼 취업률 목표를 80%이상으로 잡았고, 꼭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테니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내년에 들어올 신입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아무래도 ‘항공’하면 무서운 위계질서가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선후배간의 예의는 지키되 딱딱한 위계질서 보다는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꿈을 향해 전진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님들과 함께 할 그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유민기자 godqhr1302@jwu.ac.kr

뷰티헬스학과

중원대 뷰티헬스학과 아프로디테, 다비드상을 꿈꾸며

'스펙 8종 세트'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학벌 · 학점 · 토익점수 · 어학연수 · 자격증 · 봉사활동 · 인턴 · 수상경력을 총칭해 일컫는 말로 현 시대가 대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이다. 하지만 이제는 9종이 될 지도 모르겠다. 바로 또 하나의 스펙으로 각광받고 있는 '외모'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외모도 하나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내면적 능력이 중요한 만큼 외모도 하나의 스펙이 되는 지금! 중원대학교에서 현 흐름에 맞춰 새롭게 신설한 뷰티헬스학과! 누구보다 개성 넘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뷰티헬스학과 학생들이 과연 9번째 스펙이 될 외모에 대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Q. 2015년 올해 아동보육학과, 경호학과, 항공서비스학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티헬스학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른 학과들은 대충 무엇을 배우는지 짐작이 가지만 뷰티헬스학과는 무엇을 배우는지 짐작이 잘 가지 않습니다. 뷰티헬스학과가 어떤 학과이며 어느 것을 배우는지 소개해주세요.

A. 우리 뷰티헬스학과는 학과 명칭과 같이 뷰티와 헬스를 하나라고 생각하여 이에 따른 융·복합적인 접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야 아름다워 질 수 있고 아름다워야 건강해 보인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뷰티헬스학과는 1학년 때부터 뷰티와 헬스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고루 경험할 기회를 갖기 위하여 해부 생리학, 피부 과학, 미용학개론, 교정운동학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찾고 뷰티와 헬스의 연관성을 알며 새롭게 융·복합적인 학문으로 접근 하는 것입니다. 2학년부터는 좀 더 세분화된 전공분야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어서 1학년 때 학생들이 느낀 적성에 따라 교과과정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뷰티는 헤어미용, 피부미용, 네일아트와 메이크업, 화장품과학의 전공과 헬스는 재활, PT, AT 전공과 관련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뷰티헬스학과의 목표입니다.

Q. 뷰티헬스학과를 졸업 한다면 많은 진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떠한 진로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예상하신 바와 같이 정말 다양한 진로가 열려 있습니다. 뷰티와 관련하여 피부·헤어미용사,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의 전문가 뿐 만 아니라 미용관련 고등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뷰티 및 헬스관련(화장품 회사 및 건강관련 회사) 연구원, 국제의료뷰티코디네이터 등의 취업이 가능하며 헬스와 관련된 취업진로는 ATHLETIC TRAINER, PERSONAL TRAINER, 병원운동재활센터(척추교정, 성장, 근골격계 관련 클리닉), 비만관리, 체형관리, 건강관리사, 보건소, 국가 공공기관 등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Q. 한 학기 동안 본 결과 뷰티헬스학과 학생들이 저마다 각각의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학과에서 일어난 기억에 남는 해프닝이 있나요?

A. 정말 다양한 끼와 개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처음 입학을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학기도 마무리를 앞두고 있네요. 한 학기 동안 정말 다양한 해프닝이 많았지만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해프닝을 이야기 하자면 체육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선배도 없는 1학년 학생들이 넓은 대운동장에 소수의 인원으로 체육대회를 한다고 모여 있었을 때에는 저 인원으로 주눅이나 들지 않을까 걱정도 됐었는데 달리기 계주 할 때 서로 하나로 뭉쳐 역전과 역전을 거듭하면서 결국 1등을 해내고 마는 모습을 보고 정말 든든했고 학생들 또한 그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Q. 뷰티헬스학과에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자격증을 획득 할 수 있나요?

A. 국가자격증으로는 피부미용사(피부), 미용사(헤어), 네일아트, 컬러리스트, 건강운동관리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가 있고, 민간자격증으로는 트리콜로지스트, 메이크업아티스트, 발건강 지도자, 국제 CIDESCO, 운동 처방사, NASM(CES), NACM(CPT,CSCS), 병원코디네이터, 운동사, 걷기 지도자, 응급처치강사 등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Q. 이미 뷰티과가 개설된 학교가 생각만큼 희소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학교와 차별화 되는 우리학교 뷰티헬스학과만의 특별함을 설명해 주세요.

A. 이미 기존의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서 뷰티과가 많이 있고 또 많은 인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원대학교 뷰티헬스학과는 충북 유일 4년제 보건학사를 취득 가능한 학과로서 기존의 뷰티관련과의 특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뷰티와 헬스를 같이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존의 기능 위주의 교육 뿐 만 아니라 연구능력까지 갖춘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Q. 교수님도 이번 1기 학생들과 새로 시작하는 만큼 각오가 남다를 것입니다. 1기들에게 하고 싶으신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벌써 한학기도 마무리를 앞두고 있네요. 한학기라는 시간동안 1기생들과 저에게는 '처음'이라는 상황속에 "책임감 또는 부담감"이라는 숙제를 가지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육대회 때 보여줬던 뷰티헬스 "CORE" 라는 부호에 맞게,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1기, 자랑스러운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노력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새로 입학 할 신입생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A. 뷰티헬스분야의 문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진정한 전문가로 남아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중원대학교 뷰티헬스학과에서 여러분의 열정과 끈기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중원대학교 뷰티헬스학과의 문을 두드리세요. 진심으로 해내고자 하는 열정과 끈기 있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 **뷰티헬스학과 백순기 학과장**

정명준기자 jenkins@jwu.ac.kr

중원의 숨은 주역 ‘기획처장 · 학생처장’

대학교를 운영하는 직책 중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장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대학과 같이 거대한 단체가 운영되는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필요해서 한 사람만으로는 학교를 완벽하게 운영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하다. 이에 각 부처의 장관들이 사력을 다해 대통령을 보조하듯이 대학에도 총장을 보조하는 각 부처 처장들이 있다. 이번 기회에 대학의 기획업무 전반을 감독하는 학교의 아버지 같은 존재인 기획정보처장과, 대학의 학생업무 전반을 감독하는 학교의 어머니 같은 존재인 학생역량개발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연 그들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일을 추진 중에 있는지 알아보자.

기획정보처장 Q. 곧 교육부가 강력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치를 가운데 기획정보처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임명되신 소감과 앞으로의 비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사실은 대학구조개혁평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획정보처장이 됐기 때문에 소감을 느낄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마무리 되자마자 이번엔 대학정보공시 현장실사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느라 두 달 반의 기간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만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런 준비과정을 통해 기획정보처장의 자리가 쉽지 않다는 생각과 현재 상황을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겠구나 하는 답답한 감정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우리학교가 설립된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생학교에게도 여타 전통 있는 대학들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단합밖에 없습니다. 학생, 교직원, 임원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동질감을 느끼며 일을 해 나아갈 때 지금과 같은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많은 대학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이미 대학시장은 초 포화상태입니다. 당장 다가오는 2018년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대학의 입학정원을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는 4년제 대학만 두고 얘기했을 때 이고, 전문대학의 숫자까지 포함한다면 현 대한민국의 대학 수는 많다 못해 흘러넘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학 통폐합과 관련된 얘기는 차치하고서라도 당장에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학교도 나름 학과 통폐합이나 특성화된 과를 내세워 어떻게든 나아가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렇다 할 방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중원대만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캐릭터를 부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용태 기획정보처장

Q. 현재 상당수의 대학들이 많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학교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성과를 예측하고 계십니까?

A. 대표적으로 학생유치와 학교의 특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숫자가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압도하는 현상황에서 신입생만으로 대학을 이끌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현재는 성인학습자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부분에 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하는 성인학습자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전망이 밝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드렸던 특성화를 또 하나의 중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가 비록 서울에 있는 학교 아니라 할지라도 중원대하면 떠오르는 특별한 한 가지 특성화를 갖게 된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어떠한 구조개혁이 일어난다 해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우리학교만의 특성화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글로벌한 감각과 전문화된 영어학습, 현 직업시장의 흐름에 맞는 학과 개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Q. 기획처장으로서 학생들이 학교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을 부탁하고 싶으십니까?

A.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등록금을 낸 만큼 학교에 원하는 바를 주장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강의평가 정도로만 생각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학교에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학생회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되며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JR을 통해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그것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제 기획처장실의 문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찾아와 말씀하신다면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해 주셔야 학교도 학생들의 바라는 점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의 부끄러움을 참고 학교와 소통을 나누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Q. 학생들에게 기획처장으로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 한마디를 하신다면?

A. 제가 한번은 수업 방식을 바꿔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의 수업이 아니라 토론수업을 했었는데 그 때 크게 느꼈던 점이 학생여러분들 모두가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디 작은 실패들에 좌절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며 꿋꿋이 일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작은 당부를 하고 싶은 점은 학생여러분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의 약속을 시작으로 해서 타인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을 느끼며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마침내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향을 마침내 이루는 아름다운 중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대학교 학생여러분들이 부디 행복하시고 희망찬 미래를 개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학생역량개발처장 Q. 학생역량개발처장으로 임용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학생들과 학교의 소통을 담당하시는 최고 책임자이신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실 텐데요. 우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학생역량개발처장을 담당하게 된 조민호입니다. 학교에 교수로 부임한지 3년 만에 이렇게 학생처장을 맡게 되어서 저도 조금은 얼떨떨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교수로 부임하기 전에 1988년부터 20년 동안 첫 직장인 HP에서 마지막까지 제가 적을 뒀던 SK C&C까지, 제가 겪었던 직장생활 경험이 저를 무언가 운영을 잘 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던 후광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학생처장에 부임한지 벌써 약 3개월이 다 돼가고 있고, 현재는 여러분들을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 분골쇄신의 자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에 학생처가 학생역량개발처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맡으신 일 또한 확장이 되셨는데요. 앞으로 학생역량개발처를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A. 학생처가 기존의 학생처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학생역량개발처는 우리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과 관련된 분야까지 연장선을 뻗고 있습니다. 현재는 백평구교수 취업지원센터장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취업상담센터 및 웹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열망은 크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다소 작기 때문에 이를 깨우치는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준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옛날의 종이 포트폴리오 방식을 탈피해 입학하자마자 졸업까지의 모든 활동을 웹으로 관리하는 웹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나중에 따로 이력서를 제출 할 필요 없이 간단한 링크나 파일 첨부를 통해 다른 학교 학생보다 더 구체적이지만 보기 쉬운 이력서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테스트나 보고는 이미 끝 마친 상태이고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로 장학금 제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장학금 제도가 조금 감축되었다는 의견이 일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모색하시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A. 학생들이 옛날보다는 장학금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생 개개인별로 볼 때는 줄었다고 느끼실 수 있으나, 오히려 예전보다 학생 전체 규모가 늘어 장학금 지급률이나 액수는 과거보다 더 늘은 상황입니다. 덧붙여, 우리 학교에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이 여럿 있는 상황인데 이를 바꿔 더 노력한 학생이나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더 혜택을 주도록 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우리 학교는 기숙사형 학교입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많은데요. 학생들의 건의사항 비해 학교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중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에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을 자주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 부탁드립니다.

A. 이 점에 관해서는 저도 항상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총장님께서도 학생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체육관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종종 거론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학교는 하나의 거대한 단체이고 이런 단체는 무엇인가 추진하기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학생들에게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고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학교가 세워진지 6년이 됩니다. 당장 2009년만 해도 허허벌판에 현재 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학교지만 해가 거듭 바뀔수록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도 우리학교입니다. 몇몇 학생은 미진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학교의 모든 관계자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을지 생각하며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장 이번년 하반기만 해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 학생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학교가 개교한지 이제 6년이 다되어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들은 학교와의 소통부재를 느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학생역량개발처장님은 이러한 점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며 어떻게 해쳐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A. 소통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총장님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쪽지를 읽으며 어떻게 방안을 찾으시려고 안절부절 하시던 모습을 본 저에겐 더욱 가슴 아픈 말입니다. 저도 학생들과 소통을 최대한하고 싶지만 학생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얘기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총학생회나 JR여러분들의 학보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저에게 부담 없이 메일을 보내시는 것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만 한 단체에 속한 입장으로 제 판단만으로 단번에 수용이나 거절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저나 학교관계자들의 마음은 항상 열려있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의 사무실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찾아오셔서 얘기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Q. 학생역량개발처장님으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중원대 학생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A.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대학생 때 가지고 있던 마인드를 사회인의 것으로 바꾸시길 가장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는 대학처럼 대화로 풀어나가는 곳이 아니라 문서로 얘기하는 곳입니다. 사회에서 사용하는 문서작성법을 어느 정도 익히시고 난 후 사회에 진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이나 지식은 어차피 사회에 나간 후 배우는 것이므로 당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가 운영되는 기본적인 형식이나 마인드를 갖지 않은 채 사회에 진출 한다면 사회생활에 다소 불리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에서 주최하는 리포트나 에세이,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같은 것들에 학생들이 반드시 참여 하기를 당부합니다.

취재 – 정명준기자 jenkins@jwu.ac.kr

촬영 – 임태균기자 tg0610@jwu.ac.kr



조민호 학생역량개발처장

중원은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
JWU in

제9호 2015년 7월 1일 수요일

청출어람, 그 스승에 그 제자.
스승 김형탁교수와 제자인
덴마크 국가대표선수

마야 예어와 요한 한센



요한 한센 ▶ ◀ 마야 예어

1. 올해에도 덴마크의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세계양궁대회에 이름을 떨친 중원대의 자랑! 중원대학교에 현재 재학중인 두 덴마크 선수를 소개합니다.

M 안녕하세요. 컴퓨터시스템공학과에 재학 중인 마야 예어입니다.

Y 안녕하세요. 마야와 함께 컴퓨터시스템공학과에 재학 중인 요한 한센입니다.

2. 올해에도 어김없이 덴마크의 국가대표로 선발되셨다는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선발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M 이번에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정말 기쁩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덴마크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활동했었는데, 중원대 양궁장과 같은 좋은 훈련환경을 갖춘 곳에서 꾸준히 연습한 결과, 또 한 번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Y 저는 2009년부터 매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활동해왔었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덴마크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대회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입니다.

3. 양궁은 어떠한 계기로 언제부터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M 제가 8살 때 우연히 양궁동아리에 들어가 배우기 시작하면서 양궁선수의 꿈을 꿈꿔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 덴마크 학교에서 딱히 양궁 같은 스포츠를 가르치는 동아리가 없어서 따로 공식 양궁동아리에 가입하여 훈련을 해왔습니다.

Y 저는 13살 때 주변에 양궁을 하던 친구가 제게 양궁을 소개해주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꾸준히 연습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대결을 좋아했기 때문에 양궁이라는 매력적인 스포츠에 더 빠졌던 것 같습니다.

4. 마야와 요한 두 선수 모두 '연습벌레'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노력파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특히 마야선수는 2013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정도로 탁월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국가대표라는 우수한 성과 뒤의 숨은 노력이 궁금합니다.

M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양궁연습에 매진하는 편입니다. 현재 컴퓨터시스템공학과에 재학하여 IT관련 수업을 듣고 있는데 수업이 있을 때는 하루 5시간, 수업이 없을 때는 하루 7시간 정도 양궁훈련에 집중합니다. 2013년 3월에 한국에 처음 와서 중원대 양궁장에서 훈련을 시작했는데,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이 조성된 양궁장 시설과 하루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연습했던 끈기가 오늘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훌륭한 기반이 된 것 같습니다.

Y 저는 현재 양궁훈련에 집중하며 학업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학업이나 학교과제를 하는 것에 집중하고, 양궁장에서 훈련을 할 때는 오로지 활을 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먼저 학교 과제를 미리 마무리 지으면 그 이후 있을 훈련에 방해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양궁훈련에 더 집중했던 점이 저만의 노하우였던 것 같습니다.

5. 하지만 선수로서 오랜 기간 훈련을 하다보면 스트레스나 성적부진으로 상심했을 때도,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하나요?

M 오랜 시간 훈련을 하다보면 힘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양궁은 평소보다 조금만 각도가 틀어지면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예민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면 활쏘기에 많은 지장을 줍니다. 하지만 저는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그럴수록 쉬지 않고 계속 양궁연습에 몰입합니다. 비록 마음은 많이 힘들겠지만 평소와 같이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시 진정되기를 기다리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슬럼프를 극복하고 또한 제 자신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현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Y 가끔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슬럼프를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개 즐거운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때로는 저녁때 1시간씩 조깅을 하면서 몸을 이완시켜주고 바람도 쐬면서 휴식을 갖고 있습니다.

6. 덴마크 국가대표선수인 만큼 자국에서 명성이 자자할 것 같은데, 한국의 중원대학교에는 어떠한 계기로 입학하게 되었나요?

M 먼저 한국은 덴마크에 비해 코칭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1명의 국제적인 코치가 여러 나라를 돌면서 여러 선수들을 코칭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개 1달에 2~3번 정도만 코치와의 만남을 통해 자세를 교정 받고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코치와 선수가 1:1로 교류하는 시스템으로, 정해진 훈련시간 만큼은 코치가 한 선수에게만 집중적으로 레슨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Y 맞아요(웃음). 특히 중원대학교는 양궁훈련하기에 좋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덴마크는 club이라는 작은 사설 양궁연습장이 대부분이라 훈련하기에는 조금 협소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중원대학교는 덴마크 양궁시설보다 이미 더 발전된 시스템과 훈련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세계양궁대회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신 김형탁 감독님이 매일 1:1코치와 함께 훈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중원대학교가 양궁훈련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훈련장이라고 생각되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7. 중원대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점이나 추억이 있나요?

M 보통 학교에서 수업을 끝마치면 바로 양궁장으로 가서 훈련하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학교생활을 즐길 시간적 여유는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양궁장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캠퍼스의 푸른 잔디밭은 볼 때마다 제 마음을 평화롭게 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Y 저는 항상 친절하신 중원대학교 교수님들과 중원대 학우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경기시즌을 준비할 때면 하루 종일 훈련에 참가하느라 상대적으로 학업에 덜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희의 사정을 이해해주시고 질문할 때마다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교수님들과 학우들 덕분에 이제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8. 외국선수가 우리나라로 유학을 와서 세계정상에 오른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김형탁 감독님과의 호흡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형탁 감독의 어떠한 가르침과 훈련방식이 본인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M 김형탁 감독님은 세계적인 양궁지도자 중 한 분이십니다. 김 감독님은 선수의 양궁 능력 중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서 훈련해야 하는지 정확히 분석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덕분에 감독님의 가르침대로 기본자세부터 탄탄히 갖추고 고급기술도 연마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하루하루 발전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Y 한국에 온 이후로 김 감독님과는 몇





김형탁 감독님



마야 예어 Award

▸2013년
세계양궁선수권 여자 개인전에서 '우승'
덴마크 올림픽위원회가 선정한 '2013 올해의 선수상'

▸2015년
제1회 유러피언 게임 양궁 여자 개인전 '은메달'
광주 U대회 여자 개인전(리커브) 동메달

년 동안 같이 호흡을 맞춰 온, 떼려야 뗄 수 없는 끈끈한 사이입니다. 마야는 2008년부터, 저는 2006년부터 김 감독님과 줄곧 같이 훈련해 왔었는데, 머나먼 타지인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것부터 양궁훈련까지 감독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 이곳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9.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던 만큼 김형탁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M 감독님은 참 스승이십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감독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감독님이 항상 함께 계셨기에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 덴마크엔 스승의 날이 없어서 모르고 당일 날 지나쳤었는데 아무것도 못해드린 게 아쉽습니다. 하지만 감독님이 안 계셨더라면 한국에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현재까지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저희가 양궁훈련에 집중하여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정성들여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10. 마지막 중원대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M 제가 피나는 노력 끝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인드 때문 이였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갖고 본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Y 요즘 2016년 브라질 올림픽을 목표로 올해 7월에 있는 올림픽 세계챔피언쉽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훈련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원대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한국문화를 더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약 유럽이나 덴마크에 대해 알고 싶어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취재 – 최예린기자 choiyerin@jwu.ac.kr
촬영 – 류양무 기자 solo@jwu.ac.kr
김유민 기자 godqhr1302@jwu.ac.kr

ENGLISH CAFE에 드루와



조별과제할 공간이 없다고? 친구들과 설탕물 한 잔하며 얘기를 나눌 곳을 찾는다고?
고민할게 뭐가 있어 잉글리시 카페로 오세요!



친구들과 오순도순 모여 보드게임 한 판 할 곳을 찾는다고? 각종 카드게임부터
브루마블, 클루, 마작, 다트 등 다양한 게임을 카페에서 무료로 사용가능!

학업에 지친 당신! 달달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끼고 싶나요?
중원대생이라면 1인 2잔까지 다양한 종류의 차와 코코아,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

친구와 함께 탁구를 치고 싶나요? 연인과 함께 포켓볼을 치면서 데이트 할 장소를 찾나요?
고민할게 뭐가 있어 잉글리시 카페로 오세요!

맨날 책으로만 공부하는 영어가 지겨울 땐?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외국인 교수님들이 모이는
Hot place 잉글리시 카페! 언제든지 프리토킹이 가능하며, 원하는 교수님과 1:1 튜더링공부도 신청가능!

OPEN
월요일에서 목요일
15:00 ~ 22:30 까지
수 많은 혜택이 있는
잉글리시 카페!
위치 : 국제교류원 옆



‘주경야독’으로 꿈꾸던 공무원의 꿈

경찰행정학과 황재민,

중원대 독서실을 활용해 이루다



고시원장 ▶ **조계표 교수님**

◀ 경찰행정학과 12학번 **황재민**

Q. 꾸준한 노력으로 합격의 결실을 맺은 점 축하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와 믿음을 기반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노력파, 경찰행정학과 12학번 황재민입니다.

Q. 현재 취업하신 직장과 수행하는 업무는 어떤 것 인가요?

A. 제가 취업을 하게 된 곳은 법무부산하의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입니다. 이곳의 주요 업무는 수용자들을 교정교화를 통하여 죄를 뉘우치게 하고 다시금 사회와 가족에게로 돌아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수용자들을 교육하고 재범률을 낮추면서 올바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힘을 쓰는 일 또한 제가 수행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Q. 이전부터 한 가지 꿈만을 바라보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교정직 진로를 가시게 되었나요?

A. 교정직(교도관)의 꿈은 전공수업인 교정학 수업을 배우면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전부터 경찰공무원 준비를 하던 과정이었지만 교정학을 배우면서 예전부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성격과 적성에 맞았기에 이 직장을 선택하였습니다.

Q. 합격의 결실을 맺기 위해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나요?

A. 3학년부터 시험에 대한 필기시험과목을 준비하였고 대학교 학기 중에는 전공수업과 고시원에서의 자율학습, 그리고 방학기간동안에 해당 시험에 필요한 과목의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력시험도 대비를 하였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워드프로세서나 무도자격증이 있다면 보안계호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니 갖고 계신 분은 점수를 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취업준비를 하면서 때론 힘들었을 때도 슬럼프에 빠질때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본인 에피소드를 한 가지 들려주신다면?

A. 아무래도 취업 준비 중 시험에 대한 불안감과 놀고 싶다는 마음을 이겨내야 할 때가 힘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의 모든 공통점이기도한 ‘시험에 떨어지면 어떤 마음일까? 정말 내가 될까? 내가 떨어져도 다시금 내가 시도를 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을 혼자 많이 고민하여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훗날 10년 뒤의 긍정적인 제 모습을 그려보고 항상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저희 가족들을 떠올리며 초심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교수님들, 친구들 등 과 많은 대화를 통해 가슴속의 고민거리와 스트레스를 해소했고, 가끔은 여행도 다니며 기분전환도 하면서 슬기롭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Q. 취업준비 중에 고시합격을 위해 가장 비중을 둔 부분과 당락을 좌우한 요소가 있다면?

A. 일단은 가장 비중을 둔 부분은 채용시험에서 필요한 과목의 지식들과 체력시험에 필요한 체력인 것 같습니다. 당락을 좌우한 요소로 본다면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최종 면접 때 필요한 기본자세와 지식을 갖추는 것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중원대학교에서 첫 교정직 합격의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자신만의 특별한 취업성공 노하우가 있나요?

A. 우선은 저희 학과 교수님들과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취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의 진로를 설계를 할 수 있었고, 원하는 채용시험에 지원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용시험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체력관리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하는 습관과 인내심을 길러 반복 숙달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Q. 고시를 준비할 때 특히 교내 고시원을 잘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활용도가 높았나요?

A. 먼저 고시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숙한 고시원의 분위기를 통하여 공부에 깊이 집중 할 수 있게 되어 좋았고, 고시원만의 출결관리를 통하여 일탈을 방지하여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좋은 효과를 보아 합격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곧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원대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님들에게 조언을 해드리자면 우선 목표의식을 잃지 마시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갖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좌절하지마시고 많은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최예린기자 choiyerin@jwu.ac.kr

고시원장 조계표 교수님

안녕하세요. 경찰행정학과 교수이자 현재 중원대학교 본관 5층 S501호 고시원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조계표 고시원장입니다. 저희 고시원에서는 지방대학에서도 ‘하면 된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공무원시험에 대한 상담과 체계적인 준비를 지원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는 9급 공무원과 자격증분야에 집중하여 운영하나 앞으로 경찰간부, 7급 공무원, 행정고시 등의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더 활발한 지원을 할 계획이며, 지방대학 출신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도 지원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고시원을 통해 고시 및 자격증을 준비하는 공무원 7급, 9급 준비반, 경찰, 소방, 보건직, 교정, 사회복지직등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준비반 학생들에게는 서울 유명고시학원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무료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학생 선출 방법은 매년 학기 초에 영어, 전공, 면접 등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은 주말과 평일 오전 8시부터 밤12시30분까지 개방되어 있어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단 고시원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수업종료 이후 오후7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의무적으로 고시원에서 학습을 해야 하며, 만약 출석률이 저조할 경우 규칙에 따라 퇴실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학기 초 고시원 입실시기를 놓친 학생들을 위해 학기 중에도 수시로 상담을 통해서 고시원에 입실할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학생은 주저 없이 5층 고시원 관리실 문을 노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호학과 첫 번째 졸업의 주인공

김정애 (간호학과 11학번)



첫 졸업생 배출과 동시에 전원 국가고시합격이라는 큰 쾌거를 이룬 간호학과의 주인공 중 한명인 간호사 김정애 (간호학과11) 선배의 보람찬 대학 4년, 기억에 남는 경험,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JR이 들어 보았습니다!

1. 간호학과의 첫 졸업생임과 동시에 국가고시를 합격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 소감과 함께 간호국가고시 합격소감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간호학과에 입학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선배로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쑥스러우면서도 신기합니다.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소심하고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동안 정말 많은 마음고생을 했었어요. 아무리 국가고시에 대한 실질적인 후기를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더라도 매년 같은 문제가 나오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매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방학 중 함께 남아 응원해주시던 교수님들, 물심양면 뒷바라지해준 후배님들, 마지막으로 함께 고생하면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던 우리 11학번 동기들과 함께 극복해서 국시 전 날까지 꾸준하게 공부한 결과 합격을 했습니다.

2. 대학 4년은 어땠나요?

중원대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스스로에게 정말 많은 경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1학년 때는 해방감에 나사 하나 풀고 항상 신나서 다녔었고, 2학년이 되면서 학교에서 지원해준 해외연수장학생 프로그램에 발탁되어서 필리핀으로 짧게나마 해외연수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2학년부턴 전공이 시작되면서 학업에도 약간 재미가 생겼고, 대표활동을 하면서 학교행사 계획도 하고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었어요. 또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기 중에선 유일하게 미술심리치료사 자격증도 취득했고, 동아리 활동도 했었는데 학교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공연도 해보고 2학년 때는 귀한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3학년 때는 실습을 통해 간호학에 대한 저희 애정을 다시금 확인하고 힘을 냈습니다. 실습할 때는 전국구로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다녀보고, 4학년 때는 취업에 매달려보고 취업성공의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마지막 목표인 국시까지 합격하고 졸업을 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돌아보니 평생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요.

3. 본인의 삶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나요?

간호사란 저에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로 되기 위한 과정에서 부터 간호사로서 사는 일생 모두가 행복과 활력이 되기에 간호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배우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간호라는 '일'은 환자분들에겐 '도움'이 되고, '고마움'이 된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일'이 일생을 활력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해줄 수 있기에 간호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추가로 중학교 때부터 가져온 간호사의 꿈이 여기까지 오게 해주었기에 간호사는 제 '인생'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간호사가 된 지금, 목표는 '임상에서 인정받는 간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임상에서 인정받는 간호사는 입원환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여 환자 컨디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또 그에 맞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똑'소리 나는 간호사, 더불어 따뜻한 간호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낯설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몸도 마음도 안심하고 치료받으신 뒤 건강한 모습으로 귀가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간호사가 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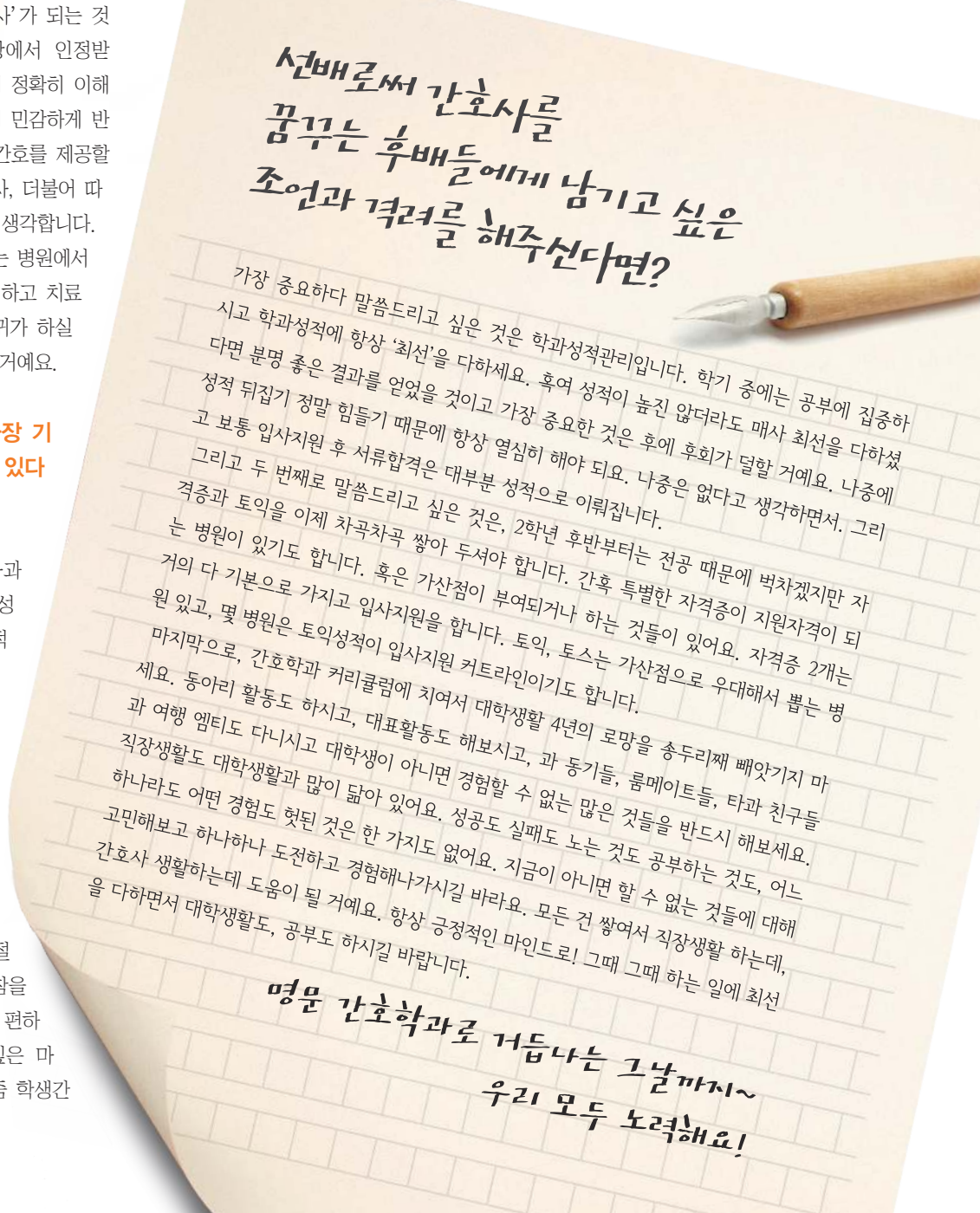
4. 간호사 실습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 경험을 말하자면 소아과 실습을 할 때 한 아이가 열성경련으로 급히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의 어머님은 둘째아이였지만, 열성경련이라는 것을 처음 겪었던 지라 열성경련에 대해 아시는 바가 없었고 혹여 아이에게 뇌손상은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이가 경련을 일으킬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복도에 나와 한참을 우시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아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요즘 학생간호사로써 환자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간호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내가 열성경련에 대해 공부해서 이에 대해 안내책자를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책과 인터넷 백과 등을 모두 찾아 읽고 안내책자를 만들어 다음날 가지고 갔습니다. 먼저 간호사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드려도 되는지 확인을 받은 후에 가져다 드리고 전에 열성경련이 심해서 고생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 큰 저희 사촌동생네 이야기를 해드리고 조금은 마음을 편안히 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큰일도 아니었고 힘든 일도 아니었지만, 고마워 해주시고 안심의 미소를 보고 나니 너무 뿌듯했고 기분 좋았습니다.

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

끝으로 그동안 무한 애정과 관심으로 돌봐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만큼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교수님들 덕분에 한명의 어엿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교수님 한분 한분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균기자 tg0610@jwu.ac.kr



제9호 2015년 7월 1일 수요일

공부와 휴식을 동시에!
알고 쓰자

도서관 전자정보자료



중원대학교 학술정보원은 지난 3월 25일 전자정보자료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학술정보박람회를 열었다. 본교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보자료'는 학술DB, e-러닝, 오디오북, 전자책 4가지로 분류된다. 많은 학생들이 박람회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중원대 학생이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 본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정보자료'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학우들을 위해 전자정보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 국내외 학술자료가 한 곳에 모였다! 학술DB!!

교수님이 턱!하고 내주신 과제, 머릿속의 지식만으로 창작의 고통을 이겨내며 완성했지만 뭔가 아쉽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전문 지식이다. 학술DB에선 KISS(한국학술정보), DBpia, 뉴논문, 학술교육원과 같은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제공하고 있다. 학술DB의 자료를 검색하기 전에 각 사이트별로 제공하는 논문의 성격과 종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고 자료를 검색하게 된다면 시간도 아끼고 내용도 충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비싸고 무거운 책은 이제 그만 휴대성 만점! 전자책!!

책가방도 하나의 패션이 된 요즘 책 한 권도 안 들어가는 가방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자고로 대학생이라면 교양을 쌓아야 하는 법! 헌데, 전공책 하나 안 들어가는 가방에 무거운 책까지 들고다니면서 읽으라고? 그런 학우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 바로 '전자책'이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전자책은 18개로 분류된 3134종의 책이 중원대학생이라면 최대 5권까지 대출해 읽어볼 수 있다. PC로 전자책을 읽을 수 있음과 동시에 모바일 앱 다운로드를 통해 책을 읽어볼 수도 있으니 책 읽을 시간 없다는 변명은 곱게 접어 하늘 위로~

● 책읽어주는 성우들의 꿀보이스! 오디오북!!

초등학생 때부터 책만 보면 뇌에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 눈이 감기는 학우도 분명 있을 것이다. 세심한 도서관 같으니! 다른 일을 하면서도 책을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이다! 한솔 오디오북에서 제공하는 오디오북은 압축된 책의 내용을 전문 성우들이 낭독해준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한권을 10~20분 분량의 여러 권으로 나눠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Wifi-zone에서 다운로드 받아 놓으면 데이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오디오북의 장점이다. 심지어 영어로 된 오디오북도 있으니 막힌 귀를 뚫고 싶은 학우에게 강추!

● 글로벌 인재는 아무나 하나? 외국어 학습센터와 함께!

"요즘은 중국이 대세래 HSK시험 준비하렴", "이력서에 토익900이상은 기본이래 기본! 3학년 되면 시간 없으니 2학년 때부터 준비해"와 같은 말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돈 쓸 곳 많고 시간은 없는 우리에겐 학원은 그림의 떡이다. 그런데 여기 '0원 인강'이 있다면 믿겠는가? 바로 'E-러닝'이다. E-러닝은 외국어 학습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일반영어에서부터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을 인터넷 강의로 들을 수 있다. 입문에서 최상급까지 난이도 또한 나눠져 있어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부터 실력을 다지기 위한 학생까지 모두에게 도움될 만한 강의들로 구성 되어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 오늘부터 시작해서 졸업할 땐 너도 나도 유창한 어휘능력을 가져보자!

임태균기자 tg0610@jwu.ac.kr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인터넷 주소창에 http://library.jwu.ac.kr을 입력해 중원대 학술정보원에 들어간다.
둘째. 로그인을 한다.
셋째. 카테고리의 전자정보에 들어가 원하는 전자정보자료를 이용한다.
넷째. 교양으로 가득 찬 대학생이 된다. or 화려한 이력서의 주인공이 된다.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 안내

개인상담 1:1 대면상담
성격, 대인관계, 정서안정
스트레스 관리, 진로 및 적성
성과 이성

집단상담 상호교류 성장모임
자기성장, 대인관계
진로탐색, 스트레스 감소

심리검사 나와 타인 이해
성격검사, 진로검사
학습검사, 인성검사
지능검사, 투사검사



➡ 중원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등 중원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 야간상담(18:00~21:00)도 가능해요! 단, 예약제 운영!!

이용방법

직접방문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 접수상담 → 맞품검사 및 개인상담 같은 문제 친구들과 나누기 전문기관 연결

중원대학교 | 학생상담센터
방 문 상 담 : 학생회관(S동) 813호 학생상담센터
전 화 상 담 : 043-830-8143~5
온라인상담 : http://counsel.jwu.ac.kr
이 용 시 담 : AM 9시~PM 6시 – 야간상담 PM 6시~PM 9시

자격증
어디까지 취득 해봤니?

스펙을 위해서 한, 두 개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오늘은 조금은 생소하고 특별한 자격증들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로, 평소 자신이 타자를 치는데 빠르고 능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 자격증에 도전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바로 '속기사 자격증'이다. 속기사란 속기문자를 사용하여 회의, 강연, 좌담회 등에서 발언 내용을 속기부호로 받아 적고, 이를 다시 평사문자로 번역하여 내용을 수정, 편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이 자격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학력, 나이 등의 제한이 없고 국회속기양성소나 사설학원의 속기사 양성과정을 통해 속기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집에서 하루 종일 SNS나 채팅을 하고 있을 바에는 자신의 능력을 살려 돈을 버는 것이 어떨까?



두 번째로, 정말로 쌓아둔 스펙과 학점은 없고 막연히 자신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이 자격증을 추천한다. 바로 '고등 감별사 자격증'인데. 갓 태어난 병아리의 암·수를 구분하는 병아리 감별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이다. 하루 최대 12시간동안 수 백 마리의 병아리 항문을 봐야하는 고된 노동을 필요로 하지만 그에 합당한 높은 봉급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게다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병아리 감별사의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한다. 심지어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병아리 감별사들을 스카웃 해가는 일도 빈번히 일어난다고 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시대에 높은 보수가 보장된 병아리 감별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세 번째로는 '웃음 치료사 자격증' 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자격증일 것이다. 웃음 치료사가 하는 일은 이렇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웃음을 통해 치료해 주는 일종의 심리 치료사라고 할 수 있다. 웃음 치료사 자격증은 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서 간단한 교육과정만 수료하면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는 여러 교육기관이나 레크레이션 강사로도 활동 할 수 도 있다. 남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대학생들이 정형화된 스펙과 각종 취업 필수 자격증에만 관심이 쏠려있는 것이 젊은 세대의 현 주소이지만, 주위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이 많이 있다. 한번쯤은 정형화된 자격증이 아닌 자신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하고 이색적인 자격증들을 취득 해 보는 것은 어떨까?

류양무기자 solo@jwu.ac.kr

사진출처

속기사 : http://blog.naver.com/brovohyerim/220280930303

병아리감별사 : http://blog.naver.com/acec808/220294585264

웃음치료사 : http://blog.naver.com/warrangx/30188248554

짝짝짝자 축하드립니다 임준우, 이승근 학생

감동이야!





추카추카

자격증 준비 기간이 길었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꼭 취득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후배들 중에서도 전기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렇다고 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노력한다면 누구나 다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걸 저를 통해 다른 학생들도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준우 (융합공학과 대학원 1)

제9호 2015년 7월 1일 수요일

1학년 부터 4학년까지 이번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는 꿀팁!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방학이 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계획은 다들 세우셨나요?
아직까지 계획을 못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학년별로 여름방학 때 하면 좋을 것들을 알아 봤습니다! 우리 모두 한 게 없는 여름방학이 아닌 알찬 여름방학을 즐겨봐요~

1학년

1학년인 학생들에게는 처음 맞는 여름 방학! 약 3달 동안 어떤 것을 하고 무엇을 해야 보람차고 의미 있는 방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준비해 봤다. 1학년이라면, 딱 지금 해야 좋을 것들을 알아봤다.



첫 번째, 여행!

대학생의 방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청춘이 불타오르는 여행이 아닐까 생각된다. 적은 돈으로 여행을 통해 낯선 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넓은 세상을 느끼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젊을 날의 특권이다. 더불어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젊은 날의 추억을 만드는 것은 인생의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학생이라면 패키지여행 보다는 자유여행/에어텔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 같다. 혼자 혹은 친구들과 여행을 하면서 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데서 얻는 것도 많지만, 비행기 표도 예약해보고, 여권도 만들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여행 계획을 세우는 여행준비 과정에서도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한다. 또 국내 여행이라면, 20대의 특권! 20대의 열정이라는 내일로를 추천한다! 내일로는 KTX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모든 열차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패스이다. 만 25세 이하만 발권이 가능하다는 사실! 많은 곳을 여행하고 싶지만 교통비가 부담스러운 대학생에게 안성맞춤이다!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popori48





두 번째, 운동 – 다이어트

20대에 스스로 절망적인 몸매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우울한가, 특히 여름은 노출의 계절!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젊은 시절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어보는 것에 큰 로망이 있을 것 이다. 1학기는 특히 술자리가 많은 학기이다. 한 학기 동안 술과 야식으로 붙은 살을 빼고, S라인을 만들기 위한 여름방학 단기 다이어트, 운동 계획과 목표를 세워 도전해보자.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goldtiger623



세 번째 – 악기 배우기!

대학생이 되어서 악기를 하나 쯤 다루고 싶지만, 학기 중에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여유 있는 방학 때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는 친구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요즘 대세인 기타를 배워 보는 것은 어떨까? 인터넷을 통해 쉽게 동영상으로 레슨을 받을 수 있고 책을 통해서도 독학으로 배울 수 있다. 이번 방학엔 악기 배우기에 도전해보자!

사진출처 :http://terms.naver.com/entry

2학년

2학년인 학생들은 작년 여름 방학을 알차고 즐겁게 잘 보냈는지 궁금하다. 혹시 잘 못 보낸 학생들이 있다면 올 해 방학은 정말 유익하게 보내야 할 텐데 말이다. 그래서 준비해 봤다. 2학년이라면 방학 때 해보면 좋을 것들!



첫 번째 – 아르바이트!

적은 용돈해결과 다음 학기 등록금 마련까지! 아직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미리 사회생활 경험도 해보고 돈의 소중함도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학기 중에는 공부 때문에 바빴지만 상대적으로 한가한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의 가치를 느껴보자.





두 번째 – 책 읽기

무더운 여름 날 집보다 시원한 도서관에 가서 자신의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책을 읽는 건 어떨까? 학기 중에 과제와 전공 공부에 치여 미뤄두었던 책읽기! 이제는 읽어야 할 때가 되었다.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서점에서 원하는 책을 사서 읽다 보면 마음의 양식과 전공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다방면으로 척척박사가 되어보자.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won201404

세 번째 – 토익&자격증 취득하기

TOEIC

대학생들과 뗄 수 없는 그것! 토익과 자격증이다. 이 둘 역시 학기 중에 준비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널널한 방학 동안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있어 황금기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중에 취업할 때에는 본인이 세워놓은 목표치에 달성하면 좋을 것이다.

3, 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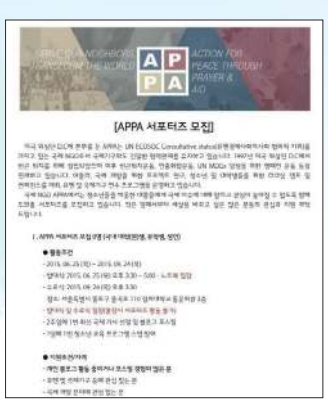
대학교에 대한 로망은 사라진지 오래다. 벌써 내 밑으로 후배가 2명 많게는 4명, 마냥 재밌었던 학교생활이 점점 지치기 시작한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자신의 미래를 확실시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곧 다가올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졸업 후 자신의 삶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자, 이제 고학년들은 여기를 주목하라! 뼈가 되고 살이 될 "어머, 이건 꼭 해야돼!"를 소개 하겠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학기동안 자신이 방학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좋을지 꼭 한번 생각해보도록하며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보람찬 방학을 보내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바란다.



첫 번째, 공모전 참여하기!

평소 학기 중에 바쁘다는 이유로 놓친 공모전들이 있다면 꼭 참여하길 바란다. 자신의 관련 분야, 혹은 자신의 관심 분야의 공모전에 여러 번 참여하여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은 훗날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요즘 기업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기에는 공모전 참여 경험이 딱 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모전에 참여하여 수상경력을 쌓게 되면 취업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기업이, 나아가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이 되기 위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자.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cream_design/220372137618



두 번째, 대외 활동하기!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다. 학생들은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대학교 캠퍼스라는 우물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안목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에 가장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 바로 대외활동이다. 온라인을 통해 대외활동 사이트를 들어가면 봉사단, 기자단, 마케터, 체험단, 인턴쉽 등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대게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기 일쑤인데 방학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참여해보자. 일단 대외활동을 하게 되면 나와는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배우는 것을 통해 사회인으로써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특정 직무와 관련해 실전 경험을 통해 얻는 수확은 대단히 다양할 것이다. 자신과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자신의 꿈을 더욱 확실히 해보면 어떨까.

사진출처 : http://www.all-con.co.kr/uni_activity/201466



세 번째, 국내여행은 그만 해외로 나가보자!

학업에 시달리랴, 취업에 시달리랴 지칠 대로 지친 우리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기에 과연 여행만한 것이 있을까. 친한 친구와도 좋고 혼자가도 좋다. 게다가 해외로 나가는 여행이라면 더욱이 흥분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길게는 못 가더라도 일주일 정도는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해외 유명 관광지에 가서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한방에 풀고 오는 것은 어떨까.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삶을 체험해보는 것과 동시에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배우며 또 다른 세상을 통해 자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 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취업 준비다 뭐다 다 좋지만 그 보다 더 뜻 깊은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 할 수 있다.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dmtmania/220171462415

네 번째, 방학을 앞두고 구체적인 계획 작성 해보기

저학년 때 방학의 소중함을 모르고 허황 생활을 보내다 방학을 헛되이 보낸 경우를 많이들 보았고 그래왔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구성을 통해 알찬 방학을 보낼 필요가 있다. 방학이 긴 것 같아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 되었고 누가 더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방학을 성공적으로 보낼지 그렇지 못할지가 정해지는 법이다. 계획을 짤 때는 정말 자신이 할 것들을 작성하며 아직 정하지 못한 것들은 따로 모아두어 계획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좋다. 성공은 준비되어있는 자들이 차지하는 법이다. 방학의 시작과 동시에 기분 좋은 출발을 하기 바란다.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classicmemo/220123820236

류양무기자 solo@jwu.ac.kr, 김유민기자 godqhr1302@jwu.ac.kr



제9호 2015년 7월 1일 수요일

이웃나라에서 온 러시아 교환학생을 만나다



저녁 7시, 잉글리쉬 카페. 많은 학생들이 테이블에 앉아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과제는 어떻게 할 건지를 차 한 잔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다른 학생들과는 확연히 다른 생김새에 바로 시선을 뺏어가는 한 무리가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저 멀리 광활한 대지와 극한의 추위를 자랑하는 러시아에서 온 교환학생들. 중원대학교에서는 매 학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교환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본교의 학생 또한 교환학생으로 보내고 있다. 이에 이번 2015년도 1학기를 작지만 아름다운 한국에서 보내게 된 이들.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러시아 대학생들은 한국의 대학생들과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점이 같은지 알아보자.



▶ 러시아 유학생들이 외국인 교수, 유학생들과 하모니 콘서트를 위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Q.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마디씩 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드레이(Andrei, 22, 이하 A), 그리고 이쪽부터 마쟈(Madina, 19, 이하 M), 안나(Anna, 19, 이하 H), 율리아(Yulia, 20, 이하 Y), 그리고 수샤(Ksusha, 20, 이하 K)입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 하구요. 가끔 하다가 안 풀릴 때가 있으면 한국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트롤링(Trolling, 다른 게이머가 화를 내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도발하는 행위)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LOL(League of Legends, 롤)말고 DOTA2하세요! 훨씬 재밌습니다!!!

M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디나에요. 쉽게 마쟈라고 부르죠. 저는 옆에 안나와 함께 K-pop을 무지 좋아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샤이니와 엑소 콘서트도 보게 돼서 정말 기억에 남아요. 아무래도 러시아에 돌아가서 금방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엑소 오빠들, 너무 멋있어요.

Y 안녕하세요. 저는 율리아에요. 저는 춤추는 걸 좋아해요. 옆에 수샤는 기타 치는 걸 좋아해서 같이 방에서 우리만의 작은 공연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룸메이트들이 없는 시간 때를 피해서요.(웃음)

Q. 아시다시피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A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오기 전에도 많은 나라에 가봤어요. 한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잘 알려진 편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 삼성 핸드폰을 제외하곤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일지 흥미를 갖게 되었고 이렇게 이번 학기 교환학생 신청을 통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H 저는 한국에 오기전부터 한국에 엄청 관심이 많았어요. 이게 다 엑소 오빠들 때문이긴 하죠. 그리고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도 재미있게 봐서 한국어도 조금은 할 줄 알아요. 그러던 김에 한국으로 가는 교환학생을 선발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이건 저한테 엄청난 기회였어요. 부랴부랴 서류를 작성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학기가 끝나고 말았네요. 엑소 오빠들, 보고 싶을거에요.

Q. 이렇게 한국에서 한 학기나 있는 동안 많은 추억들을 만드셨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K 서울을 여행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남산타워, 인사동, 한강, 동대문. 정말 어느 하나도 빼 놓을 수 없는 훌륭한 관광지였어요. 저 높이 있는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바로 한강에서 바라보는 야경이에요. 빨간 가로등과 빠르게 지나가는 차 들, 그리고 웅장하게 솟아있는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야경은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사람들로 붐볐던 인사동에서는 러시아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나눠 줄 기념품도 엄청 구매했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롯데월드에 못가본 거예요. 다음에 다시 한국을 올 기회가 생기면 그 때는 꼭 롯데월드에 가 볼 생각이에요. 아마 마쟈와 안나는 엑소랑 샤이니 콘서트가 제일 기억에 남을거에요.(웃음)

Q. 여행으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기셨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어려웠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A 아무래도 언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희끼리 음식점이나 바에가도 주문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많았어요. 가끔은 영어메뉴도 없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어서 아무거나 맛있을 것만 같은 한글을 찍어서 시켰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때 이상한 두부와 김치가 나와서 모두가 할 말을 잃었던 게 기억이 나요.(두부김치가 나왔다함)

M 저는 지하철에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일단 한국 지하철에서 이상한 사람을 많이 봤어요. 이상하게 소리치는 아저씨, 아줌마. 구걸하는 장님. 아니 정말 궁금한 게 어떻게 장님이 그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구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저게 가능한지 부터가 의문이 들더군요. 아무튼 이상한 사람들을 본 게 기억에 남고, 한번은 콘서트가 끝난 뒤였어요. 12시가 넘었었는데 지하철을 놓치고 말았죠. 근데 더 심각하게도 지하철역 자체가 갑자기 잠겨버렸어요. 그 때는 정말로 패닉이었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하철역은 항상 열려있거든요. 결국 사람을 찾아서 다시 나가긴 했지만 그 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웃음)

Q. 음식얘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은 뭐죠?

K 갈매기살. 정말 지구 최고의 음식이에요. 한국인들은 삼겹살보다 갈매기살이 훨씬 더 맛있다는 걸 알아주셨음 해요.

H 저는 떡볶이, 비빔냉면, 팥빙수를 좋아해요. 다들 제가 떡볶이를 좋아한다면 신기하게 쳐다봐요. 하지만 정말 맛있는걸요.

A 저도 수샤와 비슷하게 좋아해요. 싫어하는 거로는... 아무래도 한국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김치는 아무리 먹어도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교김치 말고 서울의 한국 사람들이 맛있다는 음식점에서도 먹어봤는데 저한테는 영 아니었어요. 김치는 저와 잘 안맞는 것 같아요.

Y 그리고 회가 별로에요. 식감이 특히 우리에게 엄청 생소해요. 특히 오징어가 문어를 먹은 적이 있는데 정말 도전하기 힘든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계란을 어떻게 한 게 있었는데...(계란찜을 말하는 거였음) 아무튼 계란으로 만든 음식이었는데 그것도 회 같이 미끌미끌한 식감을 주더군요. 그런 식감은 정말 저희에게 생소하답니다.

Q. 만약 한국에서 6개월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K 여행을 더 다니고 싶어요. 특히 부산이 제일 가보고 싶어요. 여름에 말이죠. 여름이 되면 부산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거기서 꼭 수영을 해보고 싶어요.

H 저는 꼭 롯데월드에 가고싶어요. 롯데월드는 드라마에도 종종 나오는데 정말 아기자기하면서도 흥미로운 장소일 것 같아요.

Y 저는 동해안에 가서 일출을 보고 싶어요. 혹시 한국이 동쪽에 있어서 유럽이나 러시아와는 다르게 더 예쁘게 해가 뜬다는 걸 알고 있나요? 동해에서 가장 크고 둥그런 해가 바다를 뚫고 나오며 떠오르는 장면은 장관이라고 들었어요. 이 장면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외에도 많은 여행지를 가고 싶어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니까요.

Q. 마지막으로 한 학기동안 한국에서의 소감을 말해주세요.

A 한마디로 말하자면 AWESOME!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국은 정말 굉장한 나라에요. 작지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나라고 특히 사람들도 매우 친절해요. 서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할 수 있어서 매우 편했고 거기다 친절하기까지 하니까 즐겁게 그리고 걱정 없이 여행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교수님들과 한국 친구들과의 생활도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같이 수업 듣고 같이 얘기하면서 어울리던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제게는 평생의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M H TV로만 보던 한국에 제가 오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한국은 TV에서 봤었던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특히 콘서트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Y K 이렇게 한 학기동안 한국 생활이 끝나서 정말 아쉽고 서운하네요. 많은 것을 못해본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동안 저희 많이 챙겨주시고 신경써주신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정명준기자 jenkins@jwu.ac.kr

2015 중원대 상반기

활기찬 단과 체육대전



우리가 누규~??



Eye 뜨거워라~



V라인 잘 어울리나요~



꿀벅지녀의 공의 운명은??



과잠은 거들뿐



귀엽고 깜직하고 어색한 쁘이~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슛~!



날씨도 좋고~ 사진빨도 잘받네~



나의 목소리가 들려~ 연영과 화이팅!



뗄수 없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



미래의 남성미 가득한 경호원 친구들!



소녀시대보다 끈끈한 9명!



우리 이기는거 맞지?? 당기고~ 당기고!



추억의 수건돌리기!



목청껫! 우리과 화이팅~!



중원의 이만기는 누가 될것인가!!

사진촬영 : JR. 언론장학기자

제9호 2015년 7월 1일 수요일



중원이에게 말해줘

지난 5월 12일에 깜짝 열린 JR과 함께하는 이벤트 '중원이에게 말해줘!!' 우리가 함께 많은 생활을 하는 '중원대학교!' 배우고, 생각하고, 느끼는 소중한 장소에서 중원대 학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중 눈에 띄는 추억과 메시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함께 공감해볼까요?
P.S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500여 명의 중원대 학우들께 감사드립니다.

JR.언론장학기자 Facebook

www.facebook.com/jwujr or jr.jwu.ac.kr



Q&A

Q.1 나에게 중원대학교란?
Q.2 중원대학교에서 즐거운 추억은?
Q.3 친구/ 학생/ 동료들에게 한마디!



사회복지학과 김필정

Q.1 자연친화적인 학교!! 휴식처입니다. 기숙사에만 있다가 운동장 나가서 벤치에 앉아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ㅎ 계절마다 꽃도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고, 공기도 좋고 ~ ㅎㅎ 탁 트여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Q.2 연꽃을 친구들과 함께 처음 봐서 신기해했던 기억이 있네요! 학교를 걸어서 올라갈 때 그 길에 피어져 있는 장미보고 친구들과 예쁘다며 사진 찍고, 놀이터 흔들 그네에서 쉬면서 수다 떨고 재미있고 예쁜 기억 만들어준 학교에게 감사해요 ^^*
Q.3 얘들아! 너희가 있어서 내 20대가 너무 예쁜 기억으로 있어~! 요즘은 시험이다 과제다 너무 바빠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괜히 1학년 때 이야기 꺼내면서 그때가 좋았지라고 푸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실 지금 이 순간이 더 그리울 것만 같아. 내친구들 내가 너무 사랑해♥



경영학과 임지은

Q.1 졸업 후 사회생활을 끝마칠 때까지 간직할 자랑스러운 꼬리표. 중원대학교의 홍보대사가 된 후로 학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보니 그만큼 애정도 깊어졌습니다. 어딜가든 자랑스럽게 중원대학교에 다녀오라고 말할 수 있고 중원대학교를 모른다해도 당황하지 않고 중원대학교에 대해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Q.2 체전 때 한 물총싸움, 매일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떠는 수다, 학과엠티, 홍보실 식구들과 함께 다녀온 워크숍, 개강파티, 종강파티, 스승의 날 행사, 각종홍보실행사, 홍보대사들과 함께한 코엑스수시, 정시박람회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ㅎㅎ
Q.3 중원대학교 학생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무기력한 대학생활보단 조금이라도 더 생기있고 활동적인 보람찬 대학생활, 학창시절의 추억을 남기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고 싶다면 중원대학교 학생홍보대사 가람의 활동을 지켜봐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찰행정학과 이관식

Q.1 나에게 중원대학교란 '달력'이다. 모든 달력의 뒷면에 이쁜 배경사진이 있는 것처럼 달력의 뒷면에 있는 배경보다도 아름다운 곳이 바로 중원대학교입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곳에서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Q.2 2013년 학교에 복학해서 외롭게 수업만 듣다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둥굴레'라는 봉사동아리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외롭고 슬픈 복학생이었던 제가 우리학교, 우리 동아리의 이름을 등에 달고 봉사활동을 했던 것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뿌듯함도 느끼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귄 것이 가장 즐거운 추억입니다.
Q.3 안녕하세요!? 경찰행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관식입니다. 어느덧 학교에 들어온 지 5년째 되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다니면서 지금도 후회스러운 것은 '왜 모든 일에 적극적이지 못했을까?'입니다. 찾아보면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많았는데 참여를 많이 못했던 게 큰 아쉬움입니다. 남은 2년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모든지 적극적인 활동을 추천 드립니다.



골프과학과 안혜진

Q.1 미래를 위한 가이드
Q.2 배움 것이 많은 수업들을 들으면서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 것. 좋은 사람들과 많은 소통을 하며 좋은 사람들과 공기 좋은 캠퍼스에서 골프치면서 진정한 대학생활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추억인 것 같다.
Q.3 저는 4학년이 되면서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더 많은 배움을 받지 못한 것과 더 많은 것을 소통하지 못한 것, 20살이라는 젊음을 무기로 도전하지 못한 것이 참 후회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의약화학과
이자은

Q.1 나에게 중원대학교란 처음으로 겪은 자유를 함께한 곳입니다. 20살이 되기 전까지 경험한 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실을 함께 겪은 동반자입니다.

Q.2 추억을 쌓을 장소는 많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친구들과 막 처음 학교에 와서 이곳저곳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했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기억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Q.3 모두들 각자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국제통상학과
김건희

Q.1 '사람,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내게 중원대학교의 첫 모습은 종교적 색이 짙고 크고 웅장한 느낌의 곳이었다. 엄할 것 같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곳에서 다양한 수업을 받았고 그것으로 내 꿈을 확실히 밀고 나가면서도 다양한 분야에 눈을 뜨게 되었다. 첫인상과는 사뭇 다르다. 그래서 중원대학교는 내게 "사람"같은 존재이다.

Q.2 영어수업, 룸메들과의 순간순간. 영어를 잘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즐겁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 역시 즐겁다. 그래서 영어 원어민 교수님과 대화하면서 말도 익히는 것이 즐겁다. 그리고 룸메 친구들을 만난 것. 처음 만났을 때도 어색 따위는 없었다. 이질감도 없었다. 마치 고등학교 때 친구들처럼 어제 만난 듯이 편했다. 그래서 학교생활이 더 즐겁게 느껴진다.

Q.3 룸메이트들에게. 요즘 몸이 안좋다 보니까 틱틱대는게 있는데 그게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학교생활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엔 너희들 도움이 커. 너희들과 함께하는 중원대 생활이 즐겁고 막 그래 ㅋㅋ. 곧 룸이 바뀌겠지만 그때까지 잘 부탁해!!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사랑한다♥뀨♥



식품공학과
곽두영

Q.1 나의 인생에 있어서 Turning Point가 된 곳

Q.2 1학년 때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친구들과 소통하며 학교를 홍보하면서 자부심을 가졌던 추억

Q.3 이제 곧 중원대학교를 졸업할 4학년 학생입니다. 항상 저는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저에게 어머님이 말씀 하시기를 후회를 하거든 그 후회를 기회로 바꿀 능력 정도는 되는 사람이 되라며 항상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학교생활을 하면서 후회할 일들이 종종 생기실텐데 그 후회를 꼭 기회로 바꾸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중원대학교 학생들 파이팅입니다!



이벳트

Q.1 It is my future and I believe that it will become a top university that will inspire all of it's students

Q.2 I always enjoy the sports festivals because it is a very good time to get to know students better I also participate with 경찰행정학과 in taekwondo

Q.3 Let's work together to make a brighter tomorrow!



경찰행정학과
가성운

Q.1 진짜 친구와 꿈을 준 곳. 정말 하고 싶은 것 하나 없이 정말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 옆에 친구들의 도움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꿈을 찾게 된 없어서는 안 될 곳.

Q.2 군대가기 전 체육대회 때 학과 교수님들과 같이 체육대회를 어울리고 끝나고 뒤풀이로 운동장에 둘러 앉아 술을 마시고 놀 때 정말 즐겁고 대학생활 하는 맛이 났다.

Q.3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휴학하게 되는데 5년 동안 한결같이 같은 방을 쓰며 가족같이 생활했던 F4 고맙고 항상 틱틱대서 미안해 사랑해 우리과 후배들도 사랑해~



신재생
에너지학과
안효원

Q.1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몇 가지 선입견으로 학교에 왔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가 노력할수록 많은 기회들을 제공해준 곳입니다. 시간은 상대적이라 본인이 재미있을수록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1학년 새내기가 엊그제 같은데 현실은 벌써 졸업반이네요. 힘든 게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주위의 자연 환경이나, 분위기 등이 그것을 잘 이겨내게 해주었을 겁니다. 지금은 더 넓고, 높이 나아가고 싶지만 나중에 꼭 한번 다시 살고 싶은 편안한 집입니다.

Q.2 공부는 당연히 좋은 추억이 될 수 없지만 학생회 or 언론장학기자(JR), 홍보대사의 이벤트들이 그 시간들을 조금은 소소한 행복으로 느끼게 해주었고, MT나 축제 같은 처음 느껴보는 큰 즐거운 추억보다, 지금 돌이켜보면 룸메이트와의 방에서의 생활, 학교의 작은 행사들(이것처럼)이 더 오래오래 그 기분을 상기시켜 줍니다.

Q.3 총학생회 국원들에게. 학교를 위해, 학생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총학생회 임원 여러분, 학생회비는 없고, 학생들의 지지는 낮고, 불만은 많고, 보수는 없고, 오로지 얻는 건 소소한 경험일 수도 있는데 항상 저를 믿고 열심히 일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더 노력하여, 여러분들이 한 행동들 모두 보람가득 하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9호 2015년 7월 1일 수요일

똑똑한 사랑은 알찬 데이트 코스와 함께



봄이 가고 여름이 된 지금 중원대학교의 아름다운 풍경은 더욱 더 아름다워 집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캠퍼스 커플을 꿈꾸며 교내 데이트를 상상해 보았을 텐데요.
도대체 캠퍼스 커플들은 교내에서 어떻게 어디서 데이트를 하는지 궁금하셨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학교 근처에도 데이트 할 만한 곳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장소들만 뽑아 보여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진 촬영을 할 때에도 몇몇 커플들이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은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무더운 날 사랑하는 연인
혹은 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즐기시는 것이 어떨까요?

기획 – 김유민 기자 godqhr1302@jwu.ac.kr, 촬영 – 류양무 기자 solo@jwu.ac.kr, 모델협조 – 이승진 (항공서비스학과 15)

운동장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운동장입니다. 푸른 잔디밭과 햇볕이 쨍쨍한 날씨는 과연 데이트를 하기에 꿀일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운동장에서 사이좋게 산책을 하면서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꽁냥꽁냥한 모습이 정말 예쁘고 부럽습니다.



▲하하 호호~

스탠드

운동장에서 산책을 하고 조금 힘들 때 저희 학교에 굉장히 잘되어있는 스탠드! 햇볕이 요즘처럼 뜨거울 땐 잘못 앉으면 엉덩이 데이니 그늘진 자리를 찾아 앉는 것은 필수입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식물원 & 박물관

우리 중원대학교에는 식물원과 박물관이 참 잘 되어 있죠~ 가는 길 또한 예쁘게 잘 되어있는데요. 더운 날 돌 사이사이로 물 줄기가 흐르는 걸 보니 기분 좋은 시원함을 느끼며 식물원과 박물관으로 향합니다.



▲뒷 모습조차 너무 다정해 보여~

연못

'닥터 이방인' 드라마 촬영지인 우리학교! 바로 그 장소인 연못입니다. 연못에 있는 금붕어 들을 보며 웃는 모습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즐겁나 봅니다.



▲기념 촬영은 필수!

골프장

중원대학교에는 골프장이 있다는 사실!! 모두들 알고 계셨나요? 낮에는 골프공이 날아 올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멀리서 푸른 잔디를 보세요~



▲룰루 랄라~♬

놀이터

남자 신축 기숙사 앞에 보면 조그마하게 마련되어있는 놀이터입니다. 데이트하면 빼놓을 수 없는 놀이터이죠! 동심의 세계로 잠시 돌아가 데이트를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커플은 작은 놀이기구에 앉아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너무나도 즐거워 보입니다.



잉글리쉬 카페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잉글리쉬 카페! 종종 커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중원 커플도 여기서 자주 데이트를 즐긴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원한 아이스티 한 잔의 여유와 할리갈리 게임으로 내기를 해 딱밤 맞는 모습도 좋아 보입니다.



▲내가 이겼다~아싸!

도서관

곧 시험기간인 만큼 도서관에서 공부도하고 데이트도 하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일석이조의 데이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원 커플이라면 도서관에서의 스킨쉽은 자제해야겠죠?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이다.

동진천

동진천이라고 이야기하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거라 예상됩니다. 읍내를 나가기 전에 바로 보이는 강이라고 하면 바로 다들 아시겠죠? 모두들 자주 읍내를 나가지만 동진천을 직접 걸어보고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도 좋은 데이트 장소라는 것!



▲사이좋게 꽃도 나눠 끼고~사진 찰칵!

5일마다 열리는 괴산의 장날, 이름하여

괴산 5일장!





정겨운 시골인심을 생각하면 누구나 '시장'을 떠올릴 것이다. 물건을 사러오는 손님들이 모두 다 아들, 딸, 부모님 같아서 무엇 하나 사더라도 한 움큼 더 담아주는 넉넉한 정, 굳이 지금 당장 구매하지 않아도 되니 한 입 씩 맛보고 가라며 손에 닭튀김을 쥐어주는 따스한 인심. 이 맛에 번듯한 슈퍼마켓보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전통시장을 즐겨 찾는다. 그 전통시장이 중원대학교 곁에 있다. 바로 산막이 시장에서 5일마다 열리는 '괴산 5일장'이다. 이러한 인간미 넘치는 괴산의 전통시장을 중원대학생들에게 생생히 소개하려한다.

볼거리 가득한 괴산5일장!

복합단지와 큰 상점이 즐비한 대도시와는 달리 괴산은 눈에 띄는 대형마켓이 몇 개 없다. 그 특징 탓인지 3·8일장 또는 5일장으로 불리는 장날이 5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린다.

5일장은 날짜의 일 수 중 1의 자리에 3이나 8이 들어간 날짜에 괴산 산막이시장을 중심으로 기다랗게 큰 장터가 열리는 것을 일컫는다. 장이 열리기 시작하면 시장입구는 아침부터 장바구니를 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른다. 학생들끼리, 어르신들끼리 또는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모님들끼리 저마다 삼삼오오 모여 먹고 싶었던 음식을 한 보따리씩 사가며 오랜만의 외식을 즐긴다. 시장 한쪽에 마련된 간이 포장마차에서는 사람들이 노릇노릇하게 갓 부쳐진 부침개에 막걸리 한 잔 곁들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정겨운 풍경을 볼 수 있다.

괴산 5일장은 생활물품부터 여러 옷가지까지 다양하게 판매하여 나름 없는 것이 없는 만물장터이다. 할머니가 손주 꼬까옷 한 벌 장만해주려 옷을 파는 상인과 귀여운 실랑이를 하는 모습, 반찬거리를 사려 이것저것 꼼꼼히 물건을 살펴보는 아낙네들의 모습, 또 귀여운 애완동물들을 구경하며 까르르 함박웃음을 짓는 아이들 모습으로 시장은 더욱 활기가 돋는다.

괴산 5일장의 핵심 먹거리 탐방!

시장구경의 핵심이라 하는 먹거리 탐방에도 역시 괴산 5일장은 실망시키지 않는다.

장날에만 문을 여는 국밥집에서는 일찌감치 큰 가마솥에 푹 끓여낸 따끈한 국밥을 푸느라 정신없다. 특히 한 뚝배기를 먹으면 뱃속도 마음속도 두둑해지는 장터의 순대국밥은 시장구경하며 빼놓을 수 없는 필수코스이다. 또 주전부리를 파는 음식매대에서 이것저것 먹어보라며 손에 쥐어주는 과자들을 맛보는 것도 시장구경의 쏠쏠한 재미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따스한 시골의 정에 감동받을 때는 다아들, 딸 같아서 무엇 하나 사더라도 듬뿍 듬뿍 담아주실 때 이다.

장날 특별 할인혜택

장날에만 여는 식당과 장날 할인혜택을 즐기는 것도 괴산5일장을 잘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괴산 산막이시장 내에 위치한 '한양축산' 고깃집에서는 기타 밑반찬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하는 자릿세를 장날이면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천원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산막이시장 입구에 위치한 '옛날통닭' 가게에서는 장날에만 닭다리, 닭날개 튀김을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하게 맛볼 수 있다.



이밖에도 장날에만 즐길 수 있는 여러 주전부리를 구매하거나 새로운 국밥집을 하나씩 탐방하는 재미는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괴산5일장 100% 즐기기'의 숨은 비법이다.



3, 8, 13, 18, 23, 28일, 기숙사에 있지만 딱히 특별한 일이 없을 때 또는 오랜만의 특식으로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싶을 때, 기회가 된다면 괴산 5일장을 들려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최예린기자 choiyerin@jwu.ac.kr



활력 넘치는 대학생활

차(茶)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차(茶)는 세계적인 기호 식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차를 즐기고 있다. 차는 많은 종류만큼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플라시보효과라고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모르고 마셔도 몸에 좋은 차의 효능을 알고 마신다면 얼마나 더 몸에 좋을까? 이젠 똑똑하게 우리 몸을 챙길 시간이다.



결명자차

낮에는 렌즈를 끼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밤에는 인터넷으로 쇼핑, 웹서핑, 게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침대에 눕게 되면 뻐근한 몸은 둘째 치고 눈의 피로가 절실히 느껴진다. 이럴 때 어떤 차를 마시면 좋을까? 바로 '결명자차'다.

결명자 차는 눈물이 자주 흐르거나 눈이 아프고 충혈 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 특히 안구 건조증에 효과가 좋다. 물 2L에 결명자 20g을 넣고 끓여서 차처럼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결명자는 성질이 차므로 대장 기능이 약하고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섭취를 피해야 함을 명시하자.



녹차

"야, 너 오늘 양치질 안 했지?", "아니, 했는데?" 분명히 양치질은 했는데 입 냄새가 난다고 한다. 한방에선 이를, 위장에 열이 많거나 치아나 잇몸이 안 좋을 때 생기는 증상이라고 말한다. "가뜩이나 아침도 못 먹는데 무슨 차를 마시라는 거냐?"라고 물을 수 도 있지만 구취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여러분께 '녹차'를 추천한다.

녹차는 성질이 차가워서 위장에 열이 쌓여 생기는 입 냄새를 막아 주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해 준다. 단, 카페인이 있으므로 지나치게 많이 마실 경우 불면증이 올 수 있으니 3~4잔만 추천!



도라지차

중, 고등학교 때 마냥, 많이 올라오진 않는데 가끔씩 올라오는 여드름, 뾰루지 이름만 들어도 은근히 심경이 불편해진다. 여드름, 뾰루지를 예방할 수 있는 차가 있다는데? 바로 '도라지차'다. 피부 세포를 강화하고 피지가 생성 되는 것을 막아 주는 기능이 있어 피부 건강과 여드름 치료에 좋다. 말린 도라지 30g에 감초 10g과 물 3컵을 넣고 끓여 마신다.



둥글레차

남자 학우든, 여자 학우든 피부에 신경 쓰는 학우들이 많이 늘었다. 물론, 발라서 보호하고 보습해주는 화장품이 효과가 좋겠지만 꾸준히 마셔주면 피부에 효과만점인 차, 바로 '둥글레차'다.

신진대사 촉진 및 항산화작용이 있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좋다. 차로 이용해도 좋지만 즙을 내어 얼굴에 바르면 미백 효과도 볼 수 있다. 특히 기운이 없거나 병을 오래 앓은 사람, 근골이 약한 사람이 먹으면 기운을 보할 수 있다. 둥글레 30g에 물 2L를 넣고 은근한 불에서 30분간 끓여 마시면 당신도 피부미인!



다시마차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이 차는 칼슘이 풍부하고 칼로리도 착하다. 이 기사를 읽고 난 후 마트로 향하는 자신을 볼 것이다. 바로 '다시마차'다.

다시마는 영양은 풍부한 반면 칼로리가 거의 없어 다이어트에 최적이다. 색깔이 검고 두꺼우면서 굵은 것을 고른다.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칼슘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방법으로 굶는 방법을 선택하는 젊은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다이어트로 인해 장의 연동 운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변비에도 효과가 있다. 다시마 30g에 물 300~500ml를 넣고 끓여 하루 2~3잔정도 마시면 S라인의 몸매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임태균기자 tg0610@jwu.ac.kr

영화를 통한 우리의 이야기

스물 – 젊어서 좋다



사진출처 : http://entertain.naver.com/read?oid=396&aid=0000301464

사람의 인생을 반으로 나눈다면 몇 살일까? 영화는 공부 잘하는 경재, 생활력 강한 동우 ,인기 많은 치호 공통점이라고는 스무 살이라는 것 밖에 없는 세 명의 죽마고우들이 저마다의 방식대로 청춘을 맞이하게 된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 하에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짝사랑으로 상처 받고 좌절하는 경재, 가족을 부양하기위해 꿈을 포기하는 동우,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치호.

우리는 이 속에서 상처를 입는 이 시대의 청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영화는 주인공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 끝끝내 성공해내는 여느 청춘 영화들과는 다르다. 다소 과장된 행동과 설정이 있기는 하지만 누구나 공감할만한 상황과 소재들로 구성되어 스무 살의 솔직한 모습을 그려내어 영화를 보는 내내 웃음을 자아낸다. 극중에서 동우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울 정도는 아니야”라고 청춘을 이야기하되 웃음에 중점을 둔 영화는 힘든 상황을 웃음으로 표현함으로써 마냥 힘들기만 했던 그 시절의 추억, 그러나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추억으로 웃어넘길 수 있는 우리네 스무 살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다. 이제 갓 스무 살의 문턱 앞에 서있는 사람들, 아직 스무 살과는 거리가 먼 학생들, 스무 살을 경험하신 분들 그 누가 봐도 재밌어하고 공감할 만한 요소들이 많은 영화이다. 필자는 영화를 보고나서 떠오른 말이 있다. “좋을 때다, 좋을 때야” 그렇다 지금 우리들은 좋을 때이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자신이 하고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면 그 노력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오늘도 나는 젊어서 좋다”

류양무기자 solo@jwu.ac.kr

제6회 2015학년도

아름다운 중원인 그린캠퍼스 UCC & 사진 공모전

■ **공모부문** – UCC, 사진

■ **공모대상** – 중원대에 관심 있는 본교 구성인(개인별 또는 팀단위 참가)

■ **기간 및 일정**

– 접수기간 : 2015년 7월 1일 ~ 8월 17일 24:00시 까지 웹하드 접수

– 선정기준

사진공모전 : 현장투표60% + Facebook온라인투표 40%
(투표자중 추첨하여 상품지급)

UCC공모전 : 유투브 조회수 20% + 심사위원심사80%

– 시상 : 2015.10.13(축제 시상식과 함께 시상)

■ **공모주제 “대학내 녹색환경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실천사례 및 아이디어”**

1) 녹색 생활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학생활 속의 실천방법

– 대학교에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내용

– CO2 줄이기 등 생활 속 실천사례와 이를 통해 맞이할 미래의 모습 등

– 녹색생활 실천을 주제로 감동과 교훈, 웃음을 줄 수 있는 내용

※ex)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학교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모습 등

2) 녹색 홍보

–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녹색 생활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

– 우리학교가 그린캠퍼스라는 것을 소개하는 영상

– 녹색 생화라 캠페인 송이나 뮤직비디오

– 기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학생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참신한 아이디어 등 자유롭게 창작

■ **작품규격(개인 또는 팀당 3점 이내의 작품)**

– 사진 : 800만 화소 이상, 2.5MB의 고해상도 촬영 후 압축되지 않은 원본파일(규격엄수)
※ 홍보실에서 자체 인화하므로 해상도 300dpi 이상 파일

– UCC
파일: 해상도 720X480 pixel 이상 으로 avi, wmv, mpge, swf 파일
길이: 30초 이상 3–10분 내외
※ mov의 경우 위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 범용 또는 번들 Codec으로 상영 가능하여야 함

■ **시상내역 : 총 20개 시상, 총 포상금 4,3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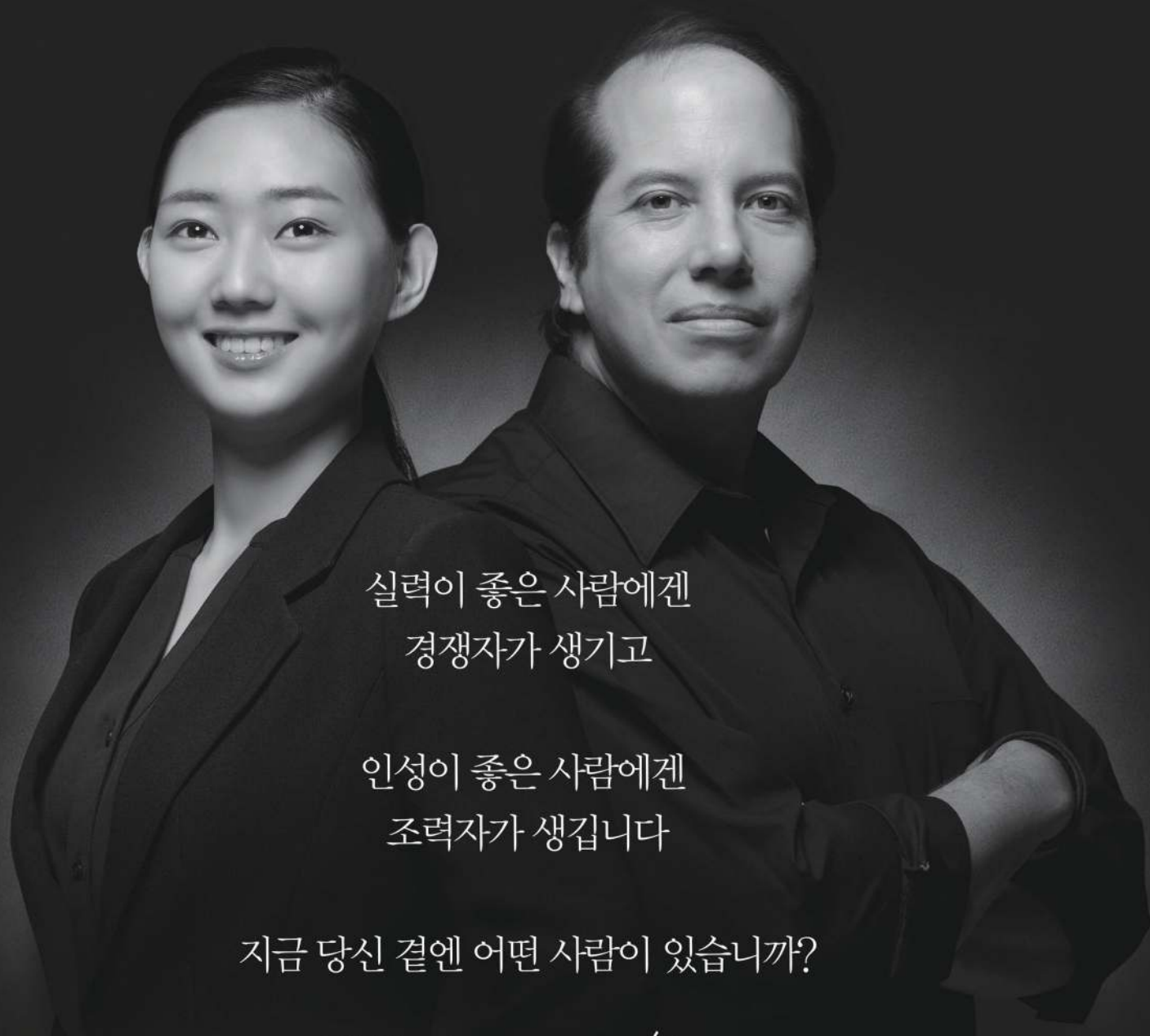
구 분		개 수	시상내역
UCC	대 상	1개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1개	상장 및 상금 80만원
	우 수 상	3개	상장 및 상금 각 15만원
	장 려 상	5개	상장 및 상금 각 5만원
사진	대 상	1개	상장 및 상금 80만원
	최우수상	1개	상장 및 상금 50만원
	우 수 상	3개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장 려 상	5개	상장 및 상금 각 5만원

※상금은 기프트 카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www.jwu.ac.kr

인성으로 인재의 중심을 세우다 – JWU



실력이 좋은 사람에겐
경쟁자가 생기고

인성이 좋은 사람에겐
조력자가 생깁니다

지금 당신 곁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중원대학교 교수 **Matthew Grills**

글로벌한 스펙,
인성으로 완성합니다
중원대학교



대학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선
최상의 교육환경, 특화된 학과교육,
최고의 캠퍼스에서 사람다운 사람,
인재다운 인재를 키웁니다

우주 항공 | 의료 보건 | 신성장 동력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안내

- **수시 원서접수기간 :** 2015. 9. 9(수) ~ 9. 15(화)
- **입학문의 :** (043) 830-8082~5
- http://ipsi.jwu.ac.kr

중원대학교 JUNGWON UNIVERSITY